



문화매일신문



제153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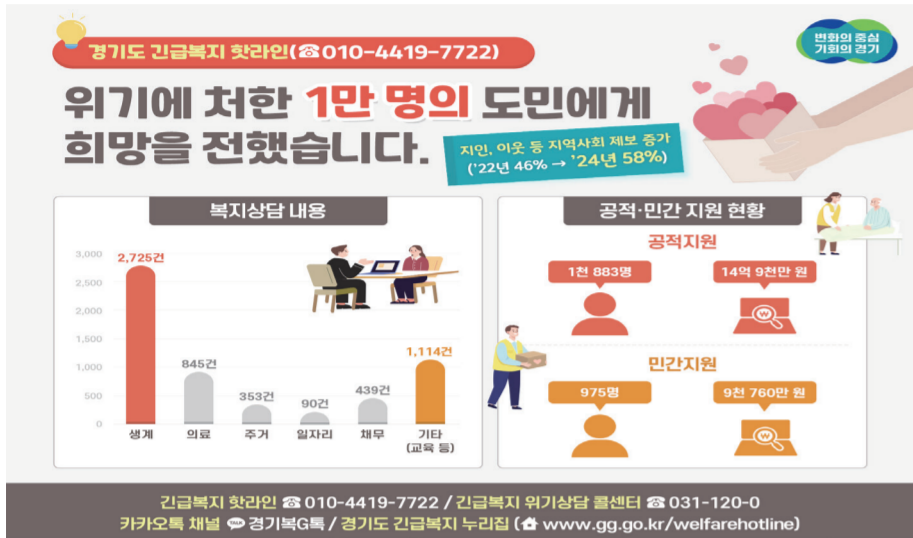
2024 / 2 / 20 / Tue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상담접수 1만 명 돌파

도, '22.8.25. 긴급복지 핫라인 개설 이후 532일 만에 민원 상담 1만 명 돌파
 복지상담 4,286명, 복지외의 타사업 등 문의 5,714건
 복지상담 4,286명 중 제보 626명(15%)
 ※ 지역사회 제보 증가율 : (22.12월) 46% → (24.1월) 58%



경기도가 2022년 8월부터 위기로 민 발골을 위해 '긴급복지 핫라인'을 운영한 결과 1년 6개월 만에 상담 접수 1만 명을 넘어섰다.

도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2022년 8월 25일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과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031-120)를 신설했고, 경기북G톡, 경기도 긴급복지 누리집으로 긴급복지 핫라인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긴급복지 핫라인에서 상담받은 1만 명 중 4천286명이 복지상담을 받았으며, 복지 이외의 건강보험료 미납 및 도내 정책 등 문의는 5천714건에 이르렀다.

도는 올해 1월 주거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고시원 2천937개소, 쪽방촌

36세대, 무료급식소 16개소에 긴급복지 핫라인 홍보물을 배부했으며 도민 밀집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해 복지도움을 필요로 하는 도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어려운 이웃을 제보하는 상담도 늘고 있으며, 개설 초기에 주로 가족이나 친인척의 제보 비율이 높았으나 점차 지인, 이웃 등 지역사회 제보가 증가하며 2022년 말에는 지역사 회 제보가 46%였으나 올해 1월 말에는 58%로 증가했다.

지난달 19일 길에서 넘어져 안면부 출혈이 있는 할머니가 도와달라는 소리에 동네 이웃이 병원 이송과 동시에 긴급복지 핫라인에 전화해 복지 도움을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도민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주저하지 않고 긴급복

지 핫라인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할 만큼 긴급복지 핫라인의 인지도가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현재 할머니는 요양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다.

도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하면 핫라인(010-4419-7722) 또는 긴급복지 콜센터(031-120), 경기북G톡(카카오톡), 긴급복지 누리집 등 4개 채널 어디로든 적극 제보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복지상담을 받은 4천286명은 50대가 1천48명(24.5%)으로 가장 많았으며 복지상담을 통해 요청받은 도움을 분야별(중복 응답)로 살펴보면 '생계지원'이 4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료 15% ▲주거 6.3% ▲재무 8% 등의 순이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가구가 42%로 가장 많았고, 2인가구 22%, 3인 가구 13%가 뒤를 이었다.

복지도움을 요청한 4천286명 중 긴급복지·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 등 공적지원 1천883명에 14억 9천만 원을 지원했고, 현금·상품권·후원물품 등 민간지원 975명에게 9천760만 원을 지원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긴급복지 핫라인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도민들도 손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상담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사후관리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 '수원 세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삼/기자

전남도, 올해 환경산림 예산 1조 6천억 역대 최대

탄소중립·공공수역 수질보전·생활환경 개선 등 중점

전라남도는 올해 환경산림 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5천995억 원을 투입해 탄소중립·공공수역 수질보전·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역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원은 국비 7천558억, 도비 2천696억, 시군비 5천741억이다.

주요 추진 사업은 ▲탄소중립 및 대기질 개선과 안정적 수자원 공급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폐기물 순환경제 체계 구축 등 생활환경 개선이다. 산림재해 예방과 숲 가꾸기, 정원 조성 등 도민의 산림복지 향상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환경 분야는 기후변화 대응 및 청정 대기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1천448억 원을 들여 전기자동차 8천101대, 수소차 443대를 보급하고, 전기충전기 200기와 수소충전소를 기존 6개소에서 14개소로 조기에 확대해 친환경차 중심 사회를 구축할 방침이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 601억 원을 투입해 운전자 배출가스 및 중소·영세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저감 사업을 적극 추진, 대기오염 핵심 배출원을 개선키로 했다.

도민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고 식수 부족문제를 해결하며, 맑고 깨끗한 강·하천 조성과 공공수역 수질보전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상수도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2천152억 원을 들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도물을 공급하고, 도서 지역 식수원 확충사업 등 5개 사업에 823억 원을 들여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추진, 근본적인 물 부족 문제 해결

에 나선다.

생태하천 복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157억 원을 들여 영산강·섬진강·탐진강 및 지류·지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하수도시설 확충사업(6개 사업, 6천171억 원)을 통해 공공수역 오염 방지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폐기물의 순환경제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연생태계 보전 및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환경보전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313억 원을 투입,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정비하고, 생활자원회수센터 등 재활용시설 확충과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 등을 통해 재활용률을 2020년 35%에서 2024년 43%로 확대할 계획이다.

생태계 복원, 생물다양성 증진, 자연생태계 기반 구축 등 27개 사업에 262억 원을 투입해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전남 환경보전센터 신규 운영을 통해 환경성질 실태 예방·관리 및 교육·홍보 등 도민 건강 보호를 강화한다.

산림 분야는 산림재해 예방·대응에 집중한다. 산림재해의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대응을 위해 지능형 산불 방지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구축사업, 산불진화체계(산불헬기 9대·산불전문 예방진화대) 구축, 산사태 예방사업 등에 676억 원을 투입, 재해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숲 조성 과 지속가능한 정원·휴양시설을 확충한다. 경관·소득숲 등 다양한 숲 조성

을 위한 10개 사업과 지방정원 조성 및 기후대응 도시 숲 등 12개 사업에 1천547억 원을 투입해 지속가능한 정원과 도심 녹지 조성을 통해 생활권 녹색기반을 확충한다.

총 사업비 1천475억 원이 소요되는 국내 최대 국립난대수목원 조성도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박종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며 "깨끗하고 청정한 생활환경과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도민이 행복한 환경·산림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경상북도 대학 대전환을 위한, 도-시·군 간 소통의 장 마련!

시·군 대학담당 부서장 대상, 경상북도 RISE 추진방향 설명회 개최

경상북도는 16일 도청 화랑실에서 22개 시·군 대학 교육 관계부서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방향 시·군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는 지난해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교육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을 약속하고, 지방정부 주도로 대학과 지역이 동반성장 하는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학 정책이다.

도는 지난해 교육부 주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래 대학 간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아이디어 산업 주도 대학 대전환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RISE체계의 기반 조성을 진행해 왔다.

올해 1월에는 도내 33개 대학을 대상으로 먼저 경상북도 RISE계획 수립과 관련해 일반대과 전문대 실무협의회

를 이미 추진한 바 있다.

이날 설명회는 대학과 함께하는 지역발전 전략 수립과 RISE 계획의 성공적 정착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시·군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는 자리였다. 경북도 대학정책과 관련해 시·군 대상으로는 처음 열린 공유와 소통의 시간이었다.

도는 지역과는 분절적으로 추진돼 온 중앙정부 주도의 고등교육 정책의 변화와 앞으로 진행해 나갈 경상북도 RISE 추진 방향 등을 설명하고, 시·군 관계자의 질의응답과 대학연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이와 관련, 도는 시·군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경북 RISE계획을 지속해서 수정·보완 한 후 올해 12월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RISE 핵심과제 중 하나로 시범 추진중인 K-U시티 모델을 예로 들어 시·군에서 대학 유무와 상관없이 1시·군-1대학-1특성화 전략프로젝트와 같

은 지역인재 양성·취업·정착으로 지속 가능한 대학중심 지역발전 모델 발굴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성현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이번 설명회로 시·군의 대학정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며, "도와 시·군, 지역기업 등이 합심하여 지역 첨단산업 육성, 저출생 등 지역현안을 해결해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 것"이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양 들머다보시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꼭오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들머다보실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영양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비와도 남이로,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벽공원, 촉백수림, 외씨버섯길
- 영양의 역사, 음식다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경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립재민호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생태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영양산촌생활박물관, 본재수석야생화전시관

ida, PARKING ASSOCIATION, citiplus, 영남대학교



www.yyg.go.kr

충남도, 다양하고 정확한 공간정보 제공 '박차'

도·시·군 공간정보 담당자 회의 개최...사업 공유·의견 수렴 등



충남도는 최근 충남도서관 다목적실에서 도와 시·군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공간정보

사업 공유 등을 위한 '도·시·군 공간정보 업무 담당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도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 공유, 협조 사항 전달, 안전 논의, 시·군 의견 수렴 등의 순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 도는 지난해 주요 성과와 올해 추진하는 공간정보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각 시·군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주요 협력사업은 △공간정보시스템(3종) 활성화 △미고시 등 지명 정비 △시·군별 정사영상(국도 변화) 구축 △지하시설물(상하수도) 전산화 △중양부처 공모사업 대응 등이다.

특히 오는 4월부터 도민에게 새롭게 개편해 △부동산 정보 △실거래가 및 전세 가격 △항공사진 △미세먼지 △실시간 버스정보 등을 제공하는 '충청남도 공간정보 포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도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국도 변화 모습을 연도별로 제작해 도민에게 서비스하는 '시·군별 정사영상 제작사업'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군과 협력을 강화해 도민에게 다양한 공간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이종배 서울시의원, 다자녀가구 공공 주차요금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다자녀가구 실물 다동이 행복카드 없이 비대면으로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 누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5일 서울시 저출산 해소의 일환으로 다자녀가구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비대면으로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의 경우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만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어 정산과정에서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해당 카드를 소지하지 못한 경우 실제 다자녀가구임에도 감면을 받지 못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례 개정안에 '서울시 바로녹색결제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자격확인이 되는 주차장 이용자를 추가함으로써 다동이 행복카드 실물이 없더라도 공공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주차요금



감면 방법 간소화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이 의원의 취지이다.

여기서 '서울시 바로녹색결제시스템'이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

용시스템과 연계하여 비대면으로도 다자녀가족 식별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자동감면 시스템으로, 감면대상 차량번호를 사전등록 후 주차장 이용 시 즉시 요금이 감면되는 기능을 말한다.

이 의원은 "서울 출산율이 0.59명으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꼴지"라며, "저출산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두 가지 획기적 정책을 성공시킨다고 해서 해소가 되지 않는다. 꾸준하면서도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고 근본적으로 애를 키우는데 크게 힘들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실물 카드를 소지하지 못했다든 이유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다자녀가구 시민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며 "실물 카드 없이도 실제 다자녀가구인 경우 공공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웅진군의회, 제242회 임시회 개최

웅진군의회가 2월 19일부터 2월 22일까지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는 2월 14일 집회공고로 했으며, 2월 19일에 개회식을 개최했다.

이후 일정을 살펴보면 2월 20일부터 21일까지는 각 위원회를 통해 의원발의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안건 심사를 할 예정이며, 2월 22일에는 본회의를 통해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2023

회계연도 결산감사 위원 선임을 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한편, 2월 19일 있었던 제1차 본회의에서 이의명 의장은 "최근 북한의 서해 NLL 일대 무력 도발 및 NLL 무력화 주장으로 인해 서해 5도 주민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으니 웅진 군민들이 긴장감을 해소하고, 삶의 터전을 잘 지켜내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군수님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종남/기자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종훈 의원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공익목적 행사에서 벼룩시장 등 상행위 허용'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도시공원내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주관·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노상 상행위, 벼룩시장 운영이 가능하도록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종훈 의원은 "도시공원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목적으로 마련한 행사라면 상행위를 허용해서 플라마켓이 활성화되고 지역 공동체 문화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나아가지 않은 경제 상황에서 지역 내 소규모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한데, "영세상인, 청년 창업자 등을 비롯한 주민들의 벼룩시장 판매 활동과 관련, 도시공원 내 상행위의 불법 여부를 묻는 민원 사례에 관할청의 판단이 모호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의원은 공원녹지법 상 도시공원 내 상행위 관련 규정에 대해, 법제처가 지역 사정을 반영하여 조례로 '허용되는 도시공원 내 상행위의 내용과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원녹지법에서 제49조제2항에 "도시공원에서 금지 또는 허용 행

위 등에 조례에 위임되어 있고 관련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김해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도시생활권 내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된 소공원, 어린이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에서의 상행위 허용은 결국 공원 이용객의 편의와 공공이익에 기여하고 공원 활성화를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조례는 오는 21일 제243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 후 2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황규진/기자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고성군은 지난 15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김홍길 고성군의회비심의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고성군의원 의정 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자치단체에서 지방의원들의 의정 활동비 지급 상한을 기존 월 110만 원에서 월 150만 원 이내 결정하는 과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진행됐다.

군은 2주 동안 전자우편을 통한 의견제출서를 받아 의견을 수렴했으며, 공청회에서는 지난달 23일에 실시한 제1차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잠정 결정된 의정 활동비 인상 기준금액 150만 원의 적정성에 대한 발표와 방청객 의견제시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의정 활동비 인상에 대한 발표자 의견 및 방청객들의 의견이 있었으며, 공통된 내용으로는 의정 활동비 인상에는 찬성하지만, 고성군의회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요청하는 의견도 있었다.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개최되는 2차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정 활동비를 결정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최만식/기자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문화관광축제 활성화 연구회' 활동 시작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흥시 문화관광축제 활성화 연구회'가 2월 15일 첫 일정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시흥시 문화관광축제 활성화 연구회'는 시흥의 주요 축제 현장을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국내 대표

축제로 도약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학습하기 위한 연구단체로, 이상훈 대표 의원과 이건설, 김수연 의원이 함께 활동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소속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홍보담당관, 문화예술과, 관광과 공무원과 시흥산업진흥원, 시흥시청소년재단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2023년 시흥시 문화예술 행사·축제 추진 결과를 공유하고 연구단체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의원들은 참석한 관계자들로부터 2024년 주요 관광·축제·문화 사업 예산, 운영 방향 등을 보고 받고 시흥 시민의 축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지역 특화 축제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효과적인 축제 홍보 방안 등을 논의하며, 2024년 문화예술행사·축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건설 의원은 관계부서가 모두 모여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라며, 내만갯벌 등 시흥시민의 지리적 여건을 활용한 축제들이 전국적인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으로 검토해 갈 것을 제안했다.

김수연 의원은 문화관광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수고하는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하며 시민들이 높은 만족도를 느끼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축제 주제를 명확히 할 것과 인근 시의 유사한 행사와 일정이나 내용이 중복되지

않고 차별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줄 것 등을 당부했다.

이상훈 대표 의원은 이번 연구단체를 통해 문화관광축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이를 위해 현재 지역과 시기가 산발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나 행사들이 그 내용과 대상에 따라 통합 추진되거나 권역별로 나누어 운영되는 등의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2024년 1월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열어 12개의 의원 연구단체를 승인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후 11개 연구단체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간담회가 각각 예정되어 있다.

권동일/기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 참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16일 경주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이순열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회 의장단은 이날 의장협의회 사무처로부터 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4차 정기회 개최 결과 등의 보고 안건을 청취한 후 상정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지방의회 교섭단체 지원인력 근거 마련 건의안',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 대표발의제도 도입 건의안' 등 13건의 상정 안건이 가결됐다.

가결된 건의안 등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의 중앙부처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최정근/기자



북구의회, 2024년도 첫 정례표창 실시

의정발전, 사회봉사, 주민자치 유공 주민·공무원 등 29명 표창

하신 주민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김형수 의장은 "언제나 북구 발전을 위해 힘써 오신 수상자 분들의 노고와 희생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올해도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을 발굴하여 존경의 마음을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의회는 매년 개원기념일 및 분기별 정례표창과 수시표창을 통해 지역주민 화합과 발전을 위해 봉사하신 주민과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와 의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김병수/기자



광주 북구의회가 지난 16일 2024년도 1분기 정례표창 수여식을 개최하고 지역사회 및 의정발전 유공 주민과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2024년도 첫 번째 정례표창인 이번 행사에는 각 기관과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의정발전, 주민자치, 사회봉사 분야별 유공 주민 23명과 공무원 6명 등 총 29명을 표창 대상으로 선정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 향상을 위해 헌신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독일 2013-07-12 제호: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독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치부:내선 (112)	문화부:내선 (116)
광고국:1899.9659	사회부:내선 (113)	부동산부:내선 (117)
	경제부:내선 (114)	오션리뷰부: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방부: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봉로 12길 9-19 로얄합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 제14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6일(금)에 대한민국의회의장협의회 제14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김근용 의원은 복지전문가로서 취약계층 및 사회적약자를 위해 사회복지, 주거복지, 교통복지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꾸준히 힘써왔다.

또한, 경기도 인구정책 관련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경기도 부모수당 및 세제 혜택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등 사회복지 연구경험을 토대로 사회적 문제와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평택 관리천 수질오염 대책', 'KG모빌리티 이전 문제 해결'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의 및 주민의견수렴 등 지역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김근용 의원은 "경제난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도민, 평택시민, 사회적약자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헌신하겠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능동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지역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박정희 대통령 사진전 성황리에 열려... 23일까지 의회 1층서 진행

'하면 된다'는 용기와 자신감으로 '한강의 기적' 이뤄내, 찬란한 근현대사 돌아보는 기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주최하는 '박정희 대통령 사진전'이 올해 첫 임시회 개회일인 16일 열렸다.

기념식은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 주요 내빈과 30여 명의 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사진전은 1961년부터 1979년에 이르기까지 ▲한국전력·노동청·철도청 발족 ▲춘천댐·의암댐·팔당댐·경부고속도로 준공 ▲잠실대교·영동대교·마포대교 개통 ▲서울지하철 1호선 개통·서울지하철 2호선 착공 ▲현충사 중건 등 박정희 대통령의 지난 발자취를 되돌아보고자 마련됐다.

23일까지 도의회 1층 로비에서 열리는 사진전에는 한국의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150여 점의 사진과 '중단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한다' 등 박정희

대통령의 생전 기록이 전시된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기념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강한 사명감과 순수한 열정을 본받아 경기도의 새로운 내일을 열어내겠다"며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를 대했던 마음을 받들어 경기도 곳곳에서 성장동력이 움트고 도민의 삶에 희망이 차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이학수 도의원, '교실의 변화, 에듀테크로 꿈꾸는 미래교육 입법정책토론회' 개최

미래교육의 핵심, 에듀테크 관련 입법정책토론회에서 경기교육 미래비전 제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위원(국민의힘, 평택5)이 좌장,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위원(국민의힘, 광주3)이 사회를 맡은 '교실의 변화, 에듀테크로 꿈꾸는 미래교육 입법정책토론회'가 1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위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 영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부천1)과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국민의힘, 광명1), 황진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고, 김호경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수원5) 등 30여명의 경기도의회 의원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오늘 토론회는 '2024 경기도의회 입법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에듀테크 기반을 통한 경기도 미래교육 방향 및 교육의 새로운 가치 제고를 위해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토론 내용을 입법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열린 논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먼저, 주제발표를 맡은 김경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육혁신센터장은 '인공지능시대, 교육의 변화: 및



충형 학습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교실'이라는 주제로 ▲교육의 혁신을 위한 교육시스템의 변화 필요 ▲미래교육을 위한 개별화된 맞춤형 학습지원 필수 ▲한국에너지공대 ALC(Active Learning Classroom) 인공지능 교실사례 및 다중학습 분석기술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안상수 한국기거래소 대표이사가 "미래세대 준비를 위해 인공지능을 적용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에듀테크 도입과 관련하여 단순히 교육에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교육현장의 환경 조성 과 교육주체의 기술활용, 에듀테크 산업의 성장 지원을 통해 교육환경 정착에 이르도록 힘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자 이유주 인하대학교 교수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교육

영역에 따른 변화에 기술 발전 및 지식 기반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진단하며 이에 따라 교수자를 대상으로 원격수업 참여 의사의 긍정적 결과와 대학이 노력해야 하는 콘텐츠 개발, 활용에 대해 설문 분석을 설명하며 이후 에듀테크 발전에 필요한 후속 연구의 방향까지 공유했다.

또, 세 번째 토론자 조종문 현화고등학교 교장은 고등학교의 현재 에듀테크 활용 교육여건 사례를 통해 학교 현장의 교육 활용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고 "에듀테크 활용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식개선의 선행되어야 하며 앞으로 현장에서 수업하는 교사들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토론자 박중

현 경기도교육청 에듀테크활용교육담당 장학관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에듀테크 활용 교육의 필요성과 정책에 관한 개요를 설명하며 "에듀테크 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와 기관별 역할이 필요하다"며 "교수 주도 수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이학수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에듀테크에 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경기교육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변화를 통해 더 나은 교육 생태계 구축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여정에 미래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입법정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김범상/기자

2024년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활발한 활동 예약!

예산정책자문위원 위촉 및 예산정책위원회 연간 운영 활성화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2월 16일 의회 정담회실에서 2명의 예산정책자문위원 위촉 및 예산정책위원회 연간 운영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안건은 2024년 예산정책위원회 운영방안, 워크숍 추진계획 등 활발한 논의를 했으며,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중점 추진사항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을 통해 보고 받았다.

예산정책위원회 위원들은 도와 도 교육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추진 사항 보고를 받은 후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 및 추계 등을 통해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업별 추가 예산확보 및 절감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예산정책자문위원회에 이규건(정보통신분야)위원, 김예진(경제분야)위원을 신규 위촉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활동하게 된다.

윤중영 예산정책위원장(국힘, 연천)은 "오늘 위촉된 예산정책자문위원님께서 소중한 도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재정이 수반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오

늘 회의를 통해 예·결산 심의 및 주요 시책사업의 분석·평가를 통해 예산정책위원들과 개선방안등을 제시하고, 현장탐방, 워크숍 등을 통해 재정분야 역량을 강화하여 예산정책위원회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설 선물은 자연과 농부의 진심을 담은
봉화장터에서!



<http://Bmall.go.kr>

특산물을 구입하려면 인터넷에서 '봉화장터'를 검색하시거나 위의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대응 예방나무주사 및 피해고사목 제거사업 추진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건강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2014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재선충(병원체)에 감염되어 소나무류(기주수목)가 고사하는 병을 말한다. 소나무재선충은 크기 1mm의 가는 선충으로서 매개충(북방수염하늘소)의 몸에 서식하다가 매개충이 건강한 소나무류의 새순을 갉아 먹을 때 생기는 상처부위를 통해 나무줄기에 침입한다. 침입한 재선충은 수액이동을 저해하여 나무를 죽게 하며 치료약이 없어 감염되면 100% 고사하는 병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2024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피해고사목 제거와 예방나무주사(66ha)를 병행 실시하여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의 월동지를 원천 차단한다.

이천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은 신둔면(용면,인후,수광,마교,고척,장동,남정,수하,지석,소정,도암,수남,도봉), 마장면(관,회억,양촌,장암,목,표교,이

치,오천,작촌,덕평,각평,해월,이평), 백사면(경사,도립,송말,현방,조읍,신대), 호변면(매곡,동산,주박,단천), 동지역(관고,사음,송정) 40개 리·동은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섬잣나무, 해송) 이동금지구역으로 원천적으로 이동이 금지되나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장의 확인증을 받은 굴취된 소나무류(조경수 및 분재 용도에 한정) 등에 한정하여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역에서도 소나무류 이동시 이천시 공원녹지과에 소나무류생상확인 신청서를 신청후 소나무류 생상확인표를 발급받아 이동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천시 공원녹지과장은 "후대에게 아름다운 산림과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 불법임목 벌채와 이동을 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배준영 국힘 전략기획부총장 만나 고양시 현안 건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노후계획도시 정비, 광역철도망 구축 등 현안 전달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6일 고양 시청에서 배준영 국회의원을 만나, 광역 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고양시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9호선 대곡 급행 연장 △출입국·이민관리청 고양시 유치 등이다.

이 시장은 특히 고양시가 1순위로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의 최종 지정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

과밀억제권역, 군사보호구역 등 넓은 중첩규제로 인구 규모 대비 기업·대학 등 자족시설이 부족한 고양시의 열악한 여건 속에서, 해외자본과 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은 고양시가 자족성을 갖기 위한 핵심 동력이자 수도권 전체의 동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촉매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4월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관련한 1기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해 정부와 지

체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배준영 의원은 제안된 사업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면서, "힘 닿는 대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서울 리노베이션TF와 관련한 고양시의 메가시티 입장 및 추진 방안 등을 밝혔다.

이동환 시장은 이날 배준영 의원에 게 메가시티와 관련해 "교통, 일자리, 교육 등 시민의 실제 생활과 이익을 기준으로 한 수도권 중심 재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메가시티 추진전략으로 △고양 메가시티 TF 발족 △기본계획·논리 등 시정연구원 차원의 연구 진행 △정부·서울시·인접도시 등을 포함한 메가시티 확대 다자간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배준영 의원은 이러한 방향성에 깊이 공감하면서, "고양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한영기/기자



광주시 어린이영어 특화 광남도서관, 부키 클럽 1기 모집

어린이 영어 특화 광남도서관 『Booky Club』 1기 참여 모집

광남도서관 Booky Club이란? 영어독서클럽(Booky Club)을 통해 개인별 영어능력에 맞는 책을 읽고, 본인 수준에 맞는 영어독서를 읽고 온라인으로 독서퀴즈(SR)를 푸는 영어독서프로그램

연령	3.11(월)	3.12(화)	3.13(수)	3.14(목)	3.15(금)
시각 (연월)	16:00 (10월)	16:00 (10월)	15:00 (10월)	16:00 (10월)	15:00 (10월)

2월 참여 모집, 3월 영어독서, 3월-7월 Booky Club Package, 7월 영어독서퀴즈

신청기간: 2024.2.26.(월)~3.1.(금)
신청자격: 영어책 읽기 가능한 초등 2~6학년
신청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해당 학생) → 프로그램 신청(광남도서관) 선착순 접수

유의사항: 개별 로그인 ID와 비밀번호는 공유 금지, 독서퀴즈 활동(온라인)은 주 3회 이상 필수 (3번이상 어질시 Booky Club 신청 1년동안 제한),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받은 정회원만 신청 가능, 테스트 미 참여시 참여가 취소되고 대기자에게 기회 제공, 모든 안내는 참여 회원의 등록한 연락처로 발송되니 꼭 미리 확인

문의: 031-760-4123

광주시는 어린이영어 특화 도서관인 광남도서관에서 오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수준별 영어독서 지원을 위한 부키 클럽(Booky Club) 1기 참여 희망자 50명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영어 동화책을 읽을 수 있는 관내 초등학교 2학년~6학년('12년~'16년생)이며, 참여 비용은 무료이다.

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부키 클럽(Booky Club)은 어린이가 영어 레벨 테스트를 통해 영어독서 레벨을 진단한 후 테스트 결과에 따라 수준에 맞는 책을 추천받고 독서 후 이해도를 점검하는 독서퀴즈를 풀어보는 영어독서 수준 향상 프로그램이다.

부키 클럽(Booky Club)의 운영은 첫째 주에 레벨 테스트를 진행해 영어독서 수준을 진단받은 후 일주일에 한

번씩 총 17회 동안 광남도서관에서 'Booky Club Package(5권)'를 수령해 집에서 읽고 영어독서퀴즈를 푸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자신이 읽은 영어책의 이해도를 점검할 수 있으며 마지막 주에는 그동안 쌓은 실력을 알아보는 레벨 테스트를 진행해 독해 능력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확인하고 과정을 마무리한다.

부키 클럽(Booky Club) 1기는 3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19주 동안 진행된다.

광남도서관 어린이영어 자료실 소장자료 1만4천635권 중 영어독서퀴즈를 지원하는 책은 2천2권이며 참여하는 학생들의 도서 대출 권수는 7권에서 10권으로 확대한다.

김범상/기자

성남시,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시 지역화폐 10만원 지급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최근 증가추세... 2023년에 약 2400명 자진 반납

성남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성남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운전자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고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성남사랑상품권 10만원(지류)을 현장에서 지급한다.

거동 불편으로 인해 반납자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거주지 인근 경찰서에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서를 제출하면 대리 반납도 가능하다.

2023년 12월 말 기준 성남시의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8만 2585명으로 성남시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인 62만8686명의 13.1%에

해당한다.

한편, 최근 3년간 성남시 전체 교통사고 가해 건수 대비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가해 비율은 2020년 11.5%, 2021년 12.9%, 2022년 15.7%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다.

성남시는 2023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통해 총 2394명의 반납자에게 성남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급증하는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운전자 스스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정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수원시, 손바닥정원 정보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지도 만들었다

수원시 홈페이지 손바닥정원 게시판에서 조성 현황 정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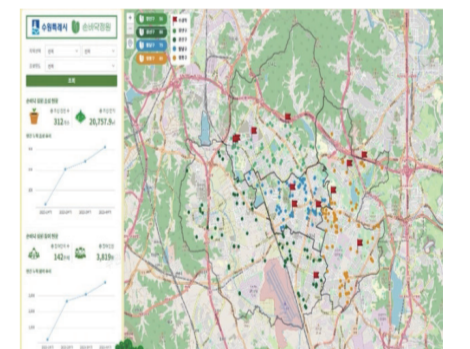
수원시가 손바닥정원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손바닥정원 온라인 지도'를 구축했다.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손바닥정원'을 검색해 손바닥정원 위치, 면적, 조성 참여 인원 등 현황을 안내하는 지도를 볼 수 있다. 2023년 베

스트 손바닥정원 콘텐츠 수상작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손쉽게 손바닥정원을 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더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정원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용인특례시, 여성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3개 과정 수강생 모집

멀티 사무원·온라인쇼핑몰 사무원, 실버사회복지사 실무 과정에 각 20명씩 선발

용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

2024년 용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생 모집

"취업을 희망하시는 여성구직자분들이라면 용인새일센터로 방문하세요!"

원예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구직자 누구나
자정입자	연간 매출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참여 가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중영원 제출)
제직대상	연소득 4천8백만원 미만으로 아직 예정인 자 참여 가능 (원정정수영수증 제출)
공통	대형 재택중인자는 제외 단, 6개월 이내 졸업자 및 중퇴자 참여 가능 (관련증빙자료 필수)
모집인원	각 과정별 20명(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수강료	10만원(수료시 5만원, 6개월 이내 취·창업 시 5만원 환급)
신청서류	직업교육훈련 참가 신청서(워크넷 구직신청 필수)
접수방법	방문 및 이메일 ysei@korea.kr (이메일 신청 시 메일제목: 지원, 신청과목, 지원자 이름)

용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전화 및 내방상담 문의: 324-8872 | 용인시 수지구 문현로 7번길 15 명정빌딩 1층 | 문의시간: 월~금요일 오전 9시~18시 | 문의전화: 031-324-8872~3, 8993 | E-mail: ysei@korea.kr

용인특례시는 용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경력보유여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 강좌를 개설해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개설한 강좌는 멀티 사무원, 온라인쇼핑몰 사무원, 실버사회복지사 과정이다.

시는 지난해 취업률이 높았던 분야와 구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등을 우선 고려해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멀티 사무원은 4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온라인쇼핑몰 사무원은 4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실버사회복지사 실무 과정은 4월 18일부터 7월 1일까지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생으로 선발되면 10만원의 교육비를 납부해야 한다. 교육을 수료한 뒤 6개월 이내 해당 분야에 취업하면 교육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멀티 사무원과 온라인쇼핑몰 사무원 과정은 2월 19일부터 3월 8일까지, 실버사회복지사 과정은 3월 18일부터 3월 29일까지다. 강좌별로 20명을 모집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용인새일센터로 방문 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시 홈페이지나 용인여성새일센터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근로활동을 중단한 여성들이 다시 직업역량을 키워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한 것"이라며 "교육 과정이 끝난 후에도 구직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 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화성시, 2025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 공모

화성시가 3월 31일까지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2025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을 공모한다.

주민제안 공모는 화성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제안 내용은 다수의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지역 불편사항을 해소하거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면 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위반되는 사업, 타 기관 사무,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국도비 매칭사업, 특정한 또는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 등은 제외된다.

제안 접수는 화성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사업은 소관 사업부서의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및 현장 확인 등을 거쳐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최종 선정되며, 2025년도 화성시 예산안에 편성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 주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해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라며 "창의적이면서도 꼭 필요한 사업 발굴을 위해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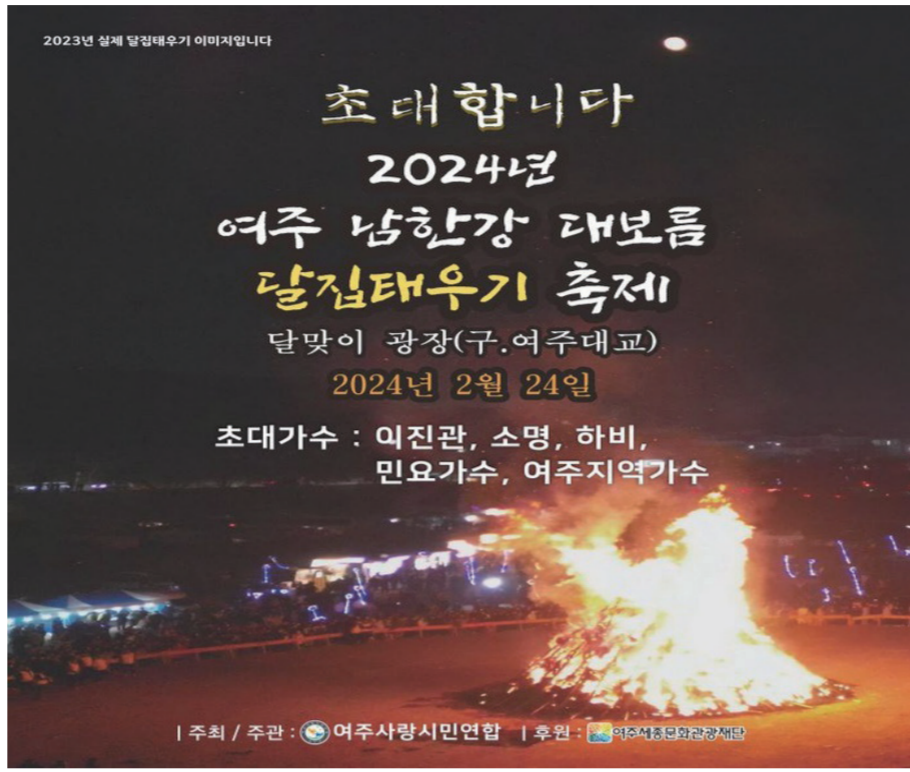
여주시, 남한강 대보름 달집태우기 축제 24일 개최

11시부터 연인교 달맞이 광장에서 행사 진행

여주시민 노래자랑, 지신밟기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 풍성
취불놀이, 연날리기, 제기차기 등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마련

여주시는 오는 24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풍년과 건강, 행복, 행운, 액땀을 기원하는 대보름 달집태우기 축제를 연인교 달맞이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보름 달집태우기는 달집이 타는 모양을 보고 한 해 농사를 점치기도 하고 기동 역할을 하는 대나무가 타면서 터지는 소리에 악귀가 달아난다고도 하는 화합과 복을 기원하는 민속놀이이다.
여주시민연합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오전 11시 광동만들기, 연날리기,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 체험으로 문을 연다. 본격 행사에 앞서 오후 2시에는 특설무대에서 시민 노래

자랑이 진행되며, 오후 5시 30분부터는 영월루에서 출발해 연인교를 지나 지신밟기 행사와 함께 다양한 공연이 이어진다.
개회식 등 공식 행사 후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월령기원제를 지내고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소원지를 매단 달집태우기 점화와 함께 불꽃놀이가 어우러지면서 절정의 분위기를 연출할 예정이다.
축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옛 선인들의 풍속을 계승·발전시키고 시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며 함께 즐기는 화합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안양시 민원읍부즈만, 금천구 경계 석수역 '위험한 보행로' 개선 해법 찾아

안양시, 도시계획선 변경 등 근본 해결책 마련 및 토지주와 적극 소통

안양시 민원읍부즈만이 일년 간의 노력으로 안양시민과 금천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석수역 1번 출구 인근 보행로 개선의 해법을 찾았다.
16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 민원읍부즈만은 지난해 3월 만안구 연현마을 주민으로부터 안양시와 서울 금천구 경계에 있는 석수역 1번 출구 인근 보행로를 개선해달라는 고충 민원을 접수했다.
해당 보행로는 석수역 경수대로(만안구 경수대로 1431)의 인도와 삼성산길의 인도가 이어지는 지점으로, 이들 인도의 단차가 커 많은 시민들이 삼성산길 차도를 진입하여 위험하게 보행하고 있는 곳이다.
민원읍부즈만은 현장을 확인해 서울 금천구와 협의했고 서울 금천구가 단차 개선 공사를 2023년 7월 착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공사 구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유지의 토지주가 개선 공사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답보상태에 빠졌다. 이에 민원읍부즈만은 시 조은호 도시계획과장과 함께 여러 대안을 검토하며 중재안을 찾았다. 조 과장은 해당 보행로가 사유지, 국유지, 사유지로 혼재돼 있고, 시 경계 토지가 불분명(불부합)하며, 보행 흐름을 방해하는 전신주가 있는 등을 확인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단계별 추진방안을 안양시 만안구

건설과 등 관련 부서와 적극 검토했다.
우선, 석수역 경수대로의 인도와 삼성산길 인도가 만나는 지점 일부 구간의 단차를 제거하여 보행자의 차로 진입을 방지하고, 중·장기적으로 전신주 제거 및 해당 구역의 국유지, 사유지 일부를 매입 후 안양시와 서울 금천구의 협의 하에 도시계획선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안양시 민원읍부즈만과 관련 부서는 검토안을 토지주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한편, 개선 공사의 필요성을 서울특별시 시의원, 금천구 의원 등과도 공유했다.
지난 7일 민원 접수된 지 근 일년 만에 토지주가 중재안을 받아들이면서 금천구가 오는 4월까지 보행로 개선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민원인은 "2020년 이후 청와대부터 안양시 및 서울 금천구까지 수차례 민원을 접수해도 처리되지 않았다"면서 "이곳을 지나면서 항상 불안했는데 해결하게 돼 매우 기쁘고 안양시와 서울 금천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권주홍 안양시 민원읍부즈만위원장은 "고충 해결을 위해 안양시 여러 부서와 서울 금천구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긴 시간 노력해주셨다"며 "앞으로 더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하남시, '총 매출 12조원' 규모 한국프랜차이즈협 본사 유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15일 하남시 아이테크에서 하남 사무실 현판식 개최...2025년 입주 예정

하남시가 1천400여개의 회원을 보유한 총 매출 12조원 규모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15일 오후 하남 아이테크에서 진행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하남 사무실 현판식 겸 프랜차이즈산업인의 날 기념식·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기업이 성공해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큰 시정 방향을 토대로 하남시에 오는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올바른 프랜차이즈 사업문화를 이룩함으로써 회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98년 설립된 협회로, 1천400여개의 회원사(회원사 총 매출액 약 12조원)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현판식 행사는 하남시가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를 하남시에 유치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이뤄낸 성과로 평가받는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하남시 이주를 위해 지난해 11월 이전 예정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5년 입주할 예정이다. 하남시는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기업지원과장이 직접 전담 PM(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맡아 소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가자무역 대표)은 "하남시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본사로 추천해 준 이현재 하남시장께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라며 "앞으로 하남시가 프랜차이즈 협회인들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소중한 장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현재 시장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제가 중소기업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의 좋은 인연과 기억으로 하남시에 등지를 틈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우리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하면 성공하는 도시'를 조성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하남시는 이번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를 유치한 것에서 보듯,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주목받는 아일랜드(1인당 국민소득, 2003년 4만940달러→2023년 11만2250달러)가 투자유치 전문기관을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해 성과를 만든 성공사례 등을 분석해 전략적 기업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 특례보증(11억원), 중소기업 특례보증(6억원),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 사업(9천만원), 디자인 개발지원사업(9천만원), 기업인교육지원(2천600만원 등)

등 관내 기업지원 ▲국내 최고 수준의 기업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제정 ▲기업유치센터 신설 및 원스톱 기업 상담(성원애펴피아 기업 이전 행정처리 30일→15일로 단축)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 선정 인센티브(2천만원 지원금, 공용 주차장 이용료 감면, 현판 지급, 관내 기업 우선계약, 세무조사 유예 등) 부여 ▲중견기업 서희건설과 PXG의 골프용품 생산·판매사인 카네·로저 나인 R&D 센터 유치 성공 등의 결과물을 만들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현재 시장과 정현식 회장을 비롯해 김정기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과장, 이병역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3대 회장(㈜이수푸드빌 대표), 김용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4대 회장(㈜김가네 대표) 등 정부 및 협회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꼭지 하나 달렸을 뿐인데... 청송사과 더욱 신선합니다. 11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청송사과는 올해부터 꼭지를 치지 않습니다. 꼭지 달린 사과는 더욱 신선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 꼭지를 치지 않으면 일손이 크게 절감돼 전국적으로 연간 660억원의 인건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만족하는 그날까지 청송사과는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대한민국 사과의 표준, '명품' 청송사과.

전남도, 나주 금성산 산정부 57년 만에 도민 품으로

1966년부터 군부대 주둔으로 보안상 통제

전라남도는 군부대 주둔으로 57년간 통제됐던 금성산 산정부가 상시 개방됨에 따라 등산로를 조성, 17일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성산 산정부 노적봉에서 열린 개통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윤병태 나주시장, 신정훈 국회의원, 권진기 공군제1미사일방어여단장, 이상만 나주시의장,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상시 개방을 축하했다.

광주 무등산 인왕봉도 지난해 9월 57년 만에 상시 개방돼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데 이어 이번 나주 금성산까지 개방되며 호남의 진산 두 곳을 지역에서 되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금성산(해발 451m)은 나주 원도심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에 국립나주숲체원, 생태숲 등 산림휴양·여가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어 지역을 대표하는 명산으로 사랑받았다. 그러나 1966년 군부대 주둔 이래로 산정부 등반이 보안상 불가능해지면서



주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남아있었다.

민선8기 이후 나주시에서 금성산 정상부 개방을 위한 관·군 간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왔으며, 지난 4월 나주시와 공군제1미사일방어여단과의 상시 개방

협약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또한 전남도의 지원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정상부로 진입하는 등산로 개설 공사를 시작해 올해 2월 안전하게 조성을 마무리했다.

등산로 개설 공사에는 총 사업비 13억 원(도비 8억 원·시비 5억 원)이 투입됐다. 금성산 낙타봉~노적봉을 연결하는 코스로, 총길이 585m, 폭 1.8m의 데크길과 목재계단으로 이어져 등산객의 편의를 도모했다.

기존 금성산 숲길 12개 노선 26.6km와 연계해 노적봉 정상까지 제약 없이 등반이 가능해지며 산행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근에 위치한 국립나주숲체원, 금성산 생태숲, 산림욕장과도 산림관광코스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9월 광주 무등산 정상 인왕봉이 57년 만에 개방된 데 이어 나주 금성산 노적봉도 함께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게 돼 의미가 더욱 깊다”며 “금성산 산정부 도유림 일원에 조성된 등산로가 산림관광명소가 되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순천시, 동절기 혈액확보를 위한 사랑 나눔 헌혈 행사

+ 헌혈로 온기를 나누다 +

생명 나눔 단체 헌혈

일시 2024년 2월 22일 (목) 10:00~16:00
장소 순천시청 정문 앞, 순천시보건소
준비물 신분증 지참 필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순천시보건소 보건의료과 (061-749-6682)

순천시는 동절기 혈액 확보를 위하여 오는 22일 10시부터 16시까지 순천시청과 보건소 앞에서 대한적십자사 광주 전남혈액원과 함께 단체 헌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혈행사는 헌혈 감소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 현장에 도움을 주고, 이웃 사랑과 생명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헌혈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헌혈 가능 연령은 16세에서 69세까지다. 약물 복용자 및 국외여행자 등은 헌혈 전 상담을 통해 격려자만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이번 단체 헌혈 참가자에게 대한적십자사에서 제공되는 헌혈증 및 기념품 외에 순천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 1만원을 지급한다. 단, 예산 소진 시 상품권 지급은 조기 종료된다.

헌혈 희망자는 보건의료과로 오는 21일까지 전화로 신청하면 되고,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혈액은 인공으로 만들 수 없고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한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승준/기자

함평군, 고품질 콩 다수확 생산을 위한 재배교육 실시



전남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고품질 콩 다수확 재배를 위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했다.

함평군은 “고품질 콩 다수확 생산을 위한 재배 기술교육을 지난 1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60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쌀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하고 쌀 이외 식량작물의 자급을 향상을 위한 과정으로 논콩재배 위주로 진행했으며, 생산부터 저장,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재배 과정

을 다뤘다.

이번 교육은 황룡위탁영농법인 이남주 이사가 강사로 나서 장성 황룡강 단지현황, 시기별 콩 재배 핵심기술, 병해충 관리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했다.

문정모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고품질 콩 다수확 교육으로 우리군 콩 재배 농가 육성과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57년만 금성산 정상부 상시 개방’ 나주시, 감격과 환희의 개통식

낙타봉서 노적봉까지 585m길이 안심 등산로 상시 개방

전라남도 나주시의 진산(鎭山)인 금성산 정상부가 57년만에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17일 오전 11시 금성산 정상부 등산로 개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개통식은 10시 20분 중간 집결지인 낙타봉에서 노적봉 정상으로 함께 걷는 행사로 시작했다. 함께 걷기엔 57년 만에 산 정상부 상시 개방을 축하하고자 주말 아침 등산에 나선 시민 500여명이 함께했다.

낙타봉 인근 지점에서 출발해 노적봉에 도착하는 새로운 등산로는 길이 585m 데크길로 조성됐다. 총사업비 14억원(도비8억, 시비6억)이 투입됐다.

군사 보호구역 통과하기 때문에 지정된 등산로만 통행할 수 있다.

산 정상부엔 군사시설 보안 유지를 위한 높이 2.5m, 길이 22m 나무 재질의 차폐막을 설치했다.

차폐막엔 금성산을 비롯한 금성관, 영산강 황포돛배 체험, 불화사 등 나주 관광 10선 사진이 전시돼 외부 등산객들에게 나주 관광의 매력을 소개한다.

오늘을 기점으로 금성산 정상부 등산로가 상시 개방된다. 산 정상에선 굽이쳐 흐르는 남도의 젓줄 영산강과 풍요로운 나주평야가 한 눈에 들어온다.

나주 원도심과 빛가람 혁신도시, 남평읍까지 광활한 도시 전경과 저 멀리 동쪽엔 무등산이 남쪽으론 월출산이 바

라다 보이는 전망도 일품이다.

등산로를 오르다 보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기암(奇巖), 다양한 수목이 우거진 자연림이 등산객을 반긴다. 시는 개통식서 기암 명칭을 정하기 위한 포스트잇 설문조사를 하기도 했다.

산 정상부에서 진행된 개통 기념행사엔 윤병태 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신정훈 국회의원, 이상만 시의회의장과 지역 도·시의원, 나주사랑시민회 등 시민단체를 비롯한 시민 50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금성산이 명산인 것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처음 정상부에 올라 굽이굽이 흐르는 영산강과 도시를 한눈에 보니 전국 8대 명산인 이유를 알았다”며 금성산이

정상부 상시 개방을 계기로 문화관광과 체험 힐링이 가능한 최적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병태 시장은 기념사에서 “57년 만에 금성산 정상부 상시 개방이라는 역사적인 날을 있게 해준 시민들의 오랜 노력과 물심양면 지원해준 전라남도, 등산로 설치·개방에 협조해준 공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나주의 진산인 금성산이 천혜 관광자원으로서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명산이 될 수 있도록 등산로 단절 구간 연결, 쾌적한 환경 정비 등 관광자원화에 힘써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안/기자



남원시, 감동의 초등학력인정 졸업식 참석

간판도 못 읽었는데...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남원시 평생학습관 성인문해 학습자 3명은 16일 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초등학력인정 문해교육 졸업식에 참석하는 영광을 안았다.

학사모와 졸업가운을 입은 3명의 어르신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설레고 빛나 보였다. 졸업장(초등학력 인정서)을 받은 어르신들은 작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짧지 않은 1년 동안 만학의 열정을 꽃 피웠던 분들이다.

초등학력 인정서는 기초문해교육 1·2 단계를 마치고, 3단계(초등 5~6학년 수준) 1년 과정을 수료한 학습자에 대해 수여하며 중학과정 입학자격이 부여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나이를 잊고 배움을 시작한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도전에 존경과 축하의 말을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성인문해 교육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는 올해에도 평생학습관에서 남원시 문해교육을 운영하여 마을 단위 경로당과 회관에 찾아가는 한글학당 지원, 교육부 공모사업 추진, 초등과정 프로그램 및 검정고시반을 개설하

여 수준별 문해교육 강화로 남원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강진군,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 대여 및 자동차 표지 발급' 실시

임산부 지원 확대로 저출산 극복 노력

강진군이 임신·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강진군은 올해 2월부터 임산부 및 태아의 교통안전과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해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는 복부를 압박하는 벨트 줄의 위치를 조정해, 골반과 허벅지를 편안하게 고정시켜 주는 전용 안전띠로 복부 압박감을 줄이면서 교통사고 발생 시 임산부와 태아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16주 이상 임산부로 최대 6개월까지 무료 사용 후 보건소에 반납하면 된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임산부가 공공시설 주차장에 설치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이다. 임산부 1명당 1대의 자동차를 임산부 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보건소에서 임부 등록 시 신청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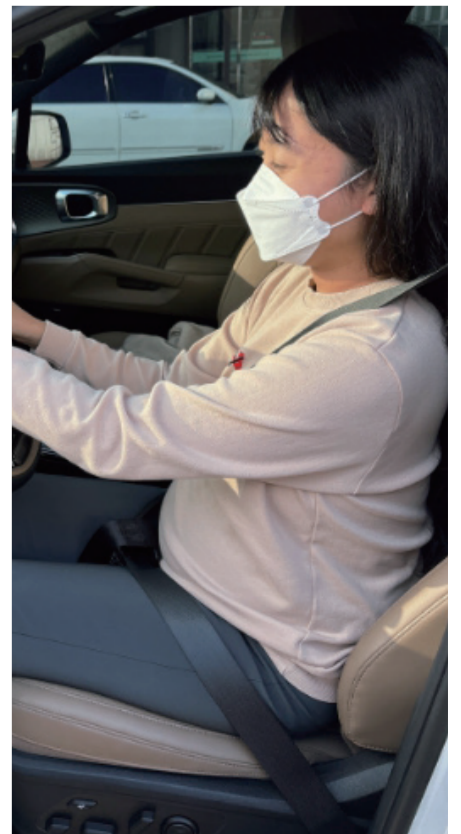
강진군은 이외에도 출산가정 부담 완

화를 위해 관내 모든 출산가정에 최대 154만 원의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난임부부는 소득에 관계없이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비용 일부를 시술 종류 및 연령에 따라 20~11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한방 난임 치료 대상자에게는 1인당 180만 원 범위 내 한약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임신·출산장려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현미 보건소장은 “임산부와 태아의 안전한 이동 환경 보장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사소한 것까지 섬세하게 챙겨, 출산 친화적인 강진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윤호/기자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도내 구급차 병원성 세균 전수조사

도내 119구급차 115대 대상 5개 분야 22품목 전수조사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19구급차 감염 예방관리를 위해 도내 15개 소방서와 함께 115대 구급차 내부의 병원성 세균 검사를 올 상반기까지 완료한다고 14일 밝혔다.

119구급차는 다양한 질병 및 외상 환자 이송으로 접촉을 통해 전파 될 수 있는 병원균 저장소로 작용할 수 있어 체계적인 감염관리와 예방이 필요하며 선제적 검사를 통해 2차감염을 차단하

고 구급대원과 도민의 구급차 이용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

검사대상은 올해 운용되는 구급차 115대 내부물품 5개분야(기도유지기, 호흡, 심혈관계 관련 물품 등 환자 보호물품과 운전석 및 부차장비 등) 22품목에 대해 구급대원과 면역력 저하 환자에게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병원성 세균 4종(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 폐렴간균, 바실루스 세레우스)이다.

김호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은“작년 구급차 111대를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도내 119구급차 내 장비의 감염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했으며, 앞으로 매년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안전한 구급차 이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신안군 영농부산물 이젠 태우지 말고 파쇄하세요!

신청만 하면 직접 파쇄해주는 서비스 실시

신안군은 지난 15일 2024년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현장에서 ‘영농부산물 수거 및 파쇄 지원’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으로 발생하는 산불을 예방하고, 미세먼지 감소 효과를 위한 파쇄 지원 서비스 홍보와 더불어 고령 농가와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작업 대행 서비스 지원도 함께 홍보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가운데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이 약 22%를 차지하고 있어, 산림 연접지 100m 이내에서의 소각 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신안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안군 농업인이라면 언제라도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산불 예방은 물론 미세먼지와 병해충 발생 감소 및 부산물 퇴비화 등 1석 4조 효과를 볼 수 있다”라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안군은 현재까지 4톤가량의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실시했으며, ‘영농부산물 파쇄의 날’을 지정해 연중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진/기자



진도군, “맥류 생육재생기 웃거름 주세요!”

맥류 습해 예방과 포장 관리 철저 당부

진도군이 고품질 맥류 생산 관리에 필요한 맥류 습해 예방을 위해 철저한 포장 관리 당부에 나섰다.

맥류 생육재생기는 겨우내 안전한 월동을 위해 생장을 일시적으로 멈췄다가 이른 기온이 상승하면 생육을 다시 시작해 양분 이동이 시작되는 시기로 속잎이 1cm 이상 자라거나 새 뿌리가 2mm 정도 보이는 때이다.

군은 이 시기를 2월 상순으로 보고 10일 이내 웃거름 주기와 최근 잦은 강우로 인한 맥류 습해 예방을 위해 포장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육재생기에 접어들면 맥류 생육에 많은 양분이 필요해 10일 이내 웃거름을 10a당 요소 10~12kg를 사용하고 생육 상태에 따라 2회로 나눠 줄 수 있다.

특히 사질토이거나 작황이 극히 불량

한 포장은 20일 간격으로 요소 5부터 6kg를 나눠줘야 뿌리 생장 촉진과 충분한 줄기수 확보로 이삭의 알 수가 많아지고 등숙률을 높여 수량과 품질이 향상된다.

단, 비료 과다 사용은 쓰러짐과 병충해에 취약해져 생육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최근 잦은 강우로 눈에 물이 고인 포장이 많아 뿌리의 산소부족에 따른 양분과 수분 흡수가 억제돼 맥류 습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배수로 정비를 통해 빠르게 물을 빼야 하고 활화현상 등의 피해 발생 시에는 요소 2% 희석액(요소 400g/물 20ℓ)을 10a당 100ℓ씩, 2~3회 살포해야 한다.

맥류 봄파종 적기는 2월 중하순으로

최소 3월 상순까지는 완료해야 하고 남부지역은 2월 상순도 가능하지만 맥류는 습해에 취약해 토양상태를 잘 고려해야 한다.

파종량은 10a당 20부터 25kg를 파종해야 수량 확보에 유리하고 비료 사용량은 질소 9.5kg/인산 7.5kg/칼리 4.0kg를 전량 밑거름으로 뿌려야 한다.

봄파종 후 수확 시기는 6월 20일 전후이므로 후작물과의 작부체계를 잘 고려해야 한다.

진도군 관계자는 “고품질 맥류 생산을 위해서는 생육재생기 이후 적기 관리가 중요하다”며 “웃거름 적기 사용과 습해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홍보와 현장 기술지원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영진/기자



정남진 장흥 '아르미쌀', 몽골 현지인 입맛 공략

3월 호주 수출, 4월 미국, 싱가포르 수출 예정



정남진 장흥군은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인 ‘아르미쌀’이 몽골에 2차 수출된다고 밝혔다.

이는 장흥군과 정남진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지난 2021년 전남 최초로 “새정부” 쌀을 수출한데 이어 꾸준한 수출협약, 해외 판매장 개설, 해외 쌀 판촉 행사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이루어 낸 성과로 12톤의 아르미쌀을 (주)NH농협무역을 통해 몽골 Green International 현지마켓에 수출할 예

정이다.

또한 아르미쌀은 세계 고객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 오는 3월에는 호주 수출 30톤이 있으며, 4월에는 미국에 이어 싱가포르까지 수출할 계획이다.

장흥군은 수출품목의 전락화와 다양화를 위해 현지에서 인기 좋은 진공 소포장 상품 개발로 오스트리아, 독일 등에도 집중적으로 수출할 계획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쌀 수출은 장흥군 쌀산업 발전과 전남 쌀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흥 농산물이 해외로 수출될 수 있도록 오는 3월에는 중국 청도에 장흥군 특산품 판매센터를 개관하고 수출 전략품목 발굴과 수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군은 전년도 ‘제1회 수출 우수시군 경진대회 우수상’, ‘농식품 유통분야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박재원/기자

완도군, 3월 12일까지 '2023년 기준 사업체 조사' 실시

6,406개 사업체 대상 운영 장소·종사자 등 조사

완도군은 오는 2월 16일부터 3월 12일까지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관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실시한다.

통계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업체 조사는 사업체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하여 지역 개발 계획 수립 및 평가, 기업 경영 계획 수립 및 학술 연구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한다.

완도군에서는 조사 기준일(2023. 12. 31.) 약 6,406개 지역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장 운영 장소, 종사자 수 등을 조사한다.

군은 조사의 정확성을 위해 사전 교육을 마친 조사원 18명을 투입하며, 사전 준비에 철저를 하여 조사 대상 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조사 방법은 조사 요원이 사업체를 방문해 응답자와 면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상황에 따라 전화 및 배포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사업체 조사 결과는 '24년 12월 확정 및 공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체 조사는 사업체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하고, 미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면서 “조사 내용은 통계작성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통계법에 의해 엄격히 보호되고 있으니 올바른 정보 제공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양영을/기자



목포시-교육지원청,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 신청

통합늘봄·무안반도 공동 연계교육 등(해상풍력, 해양관광, 항공산업)



목포시가 목포·무안·신안 교육지원청, 무안군, 신안군과 함께 지난 8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과 협력해 지역 맞춤형 교육발전 전략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지역인재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종합적

으로 지원하는 체제다.

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 교육정책의 특례 적용 기회 및 특별교부금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3년간 시범 운영 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정식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공모으로 제출된 이번 공모기획안에는 무안반도 공동교육발전모델을 담았다.

지역발전산업 인재양성을 목표로 무안반도 거버넌스를 구축해 공동연계 교육기반을 조성하여 해상풍력·해양관광·항공산업 특화 인재를 양성한다는 추진 전략과 세부과제가 포함됐다.

시는 지난해 말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지정 추진계획이 발표된 후부터 지역여건에 맞는 교육발전특구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교육지원청, 지역대학, 특성화고 등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신청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 및 목포시·무안군·신안군과 공동으로 『무안반도 교육발전특구』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력과제 설정을 위한 실무협의를 추진하며 특구

지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정되며, 오는 3월 초 교육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교육발전특구는 목포·무안·신안의 무안반도 지역발전산업 인재양성도시의 초석이 될 것이다”며 “교육문제 해결이 인구 소멸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큰 대안이 되는 만큼 최종 지정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종배/기자

구례군, 열린 강좌로 국비 확보 대응 전략 모색

전남 구례군은 2월 15일 섬진아트홀에서 '국비 확보를 위한 대응 전략'을 주제로 열린 강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은 전라남도 예산담당관실 이선호 예산총괄팀장을 초빙해 지방재정 성공적인 국비 확보 전략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사로 초빙된 이선호 팀장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만 10여 년을 근무했던 정부 예산 전문가이다.

이날 강연은 ▲국비 확보 예산 과정 이해 ▲국비 확보 9대 전략 ▲사례 연구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선호 팀장은 중앙부처와의 다양한 채널을 통한 상시

적 소통, 예산 심의 시기에 따른 선제적 대응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을 강조했다.

또한 이 팀장은 정부의 정책 기조를 숙지해서 구례군만의 특성화된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설명은 요구자가 아닌 심의자 입장에서 고민하고 준비할 것을 제안했다.

김순호 군수는 “최근 국가정책 방향이 변화함에 따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 노력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지역 성장의 마중물이 되는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군민이 주인이 되어 함께 만드는 보성군, 주민참여예산 상시 접수

보성군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025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연중 상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접수 기간을 연중으로 확대해 주민의 의견을 빠짐없이 다양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제안은 보성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보성군에 영업소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도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군 누리집(홈페이지) '정보공개' '예산정보' '예산편성에 바란다'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다음 군청 기획예산실 예산팀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보성군은 군정 전반에 대한 투자 대상 사업,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다수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성이 있는 사업, 인구 늘리기,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중점 검토해 역점 시책 사업으로 추

진할 방침이다.

접수된 제안 사업은 사업 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 주민 수혜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2025년 예산에 반영된다. 단, 2024년 9월 1일 이후 접수 건은 익년도(2026년) 사업에 반영된다.

보성군은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2012년부터 주민참여예산 제안 공모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제안

사업은 44건으로 60억 원, 선정 사업은 18건으로 54억 7,800만 원이 반영됐다.

보성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책을 더 많이 발굴하기 위해 매년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라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최원영/기자



경북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사태 복구사업 실무 교육 실시

안전관리 대책 수립과 현장점검으로 안전사고 한 건도 발생 않도록 노력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은 16일 경상북도 북부청사 회의실에서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사태 복구사업 실무 교육'을 했다.

산림사업은 주로 험난한 산지에서 이루어져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다른 사업장에 비해 높으며, 특히 경사지 벌목 작업과 공사 자체 운반 과정에서 장비 전복 및 끼임 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말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고, 지난해 극한호우로 인해 발생한 경북 북부지역 산사태 피해(142ha) 지역을 올 상반기 중 건설한 복구 완료로 산림 재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

산림산업의 안전한 추진을 위한 이번 교육에는 이우광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건설안전부장과 손인수 한국지산기술협회 전문위원이 ▲중대재해처

벌법과 위험성 평가 ▲임도·사방 재해 사례 ▲산림재해 복구 및 사업추진시 중요사항 ▲산림사업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 등에 관한 내용으로 강의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사업 전반에 걸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조치에 대해 대응책 수립과 시공 우수사례 공유 등 산사태 피해지 조기 완료를 위한 자체 계획 수립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토의 했다.

구재완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은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현장점검을 통해 산사태복구사업을 포함한 산림복구사업이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대구시 도시농업의 공익적 가치 전파할 7기 전문가 양성 교육 개설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3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교육

대구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도시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알리고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2024년도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을 3월 20일부터 운영한다.

도시농업은 힐링과 치유의 공간으로서 도시민들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도시 내 녹지공간으로서 생태계 보전과 기후조절 효과 등의 공익적 가치를 제공해 도시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은 3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총 13회 80시간 동안 진행되며, 도시농업의 이해, 텃밭 작물 재배 및 텃밭 프로그램 기획 등 이론과 실습을 통해 참가자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 도시농업 분야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2023년까지 6기 도시농업전문가를 배출해 대구도시농업연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시농업관리사들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화과정을 올해부터 운영한다.

심화과정은 정원의 자연을 활용해 놀이와 교육을 접목한 통합과정을 진행할 강사 교육으로 3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16회 56시간으로 수료 후 센터에서 진행하는 초보어린이농부학교 강사로 활동할 계획이다.

올해를 시작으로 센터에서 배출된 도시농업전문가를 심화과정을 통해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의 수강신청은 3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청 홈페이지의 '공모/모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강 대상자는 서류 심사를 거쳐 고득점자 순으로 총 40명이 선발된다.

이 양성과정은 도시농업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교육과정으로, 수료 후 국가기술자격증 중 농업분야 9종(농화학·시설원예·원예·유기농업·종자·화훼장식·식물보호·조경 또는 자연생태복원)의 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자격증 취득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시설에 배치되거나 학교 텃밭 강사, 관리사, 도시농업 전문 강사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오명숙 대구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우리 센터에서 양성한 도시농업관리사들을 사업과 교육의 강사로 활용해 도시농업활성화와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박형준 부산시장, 주한영국·카자흐스탄대사 접견... 부산과의 교류·협력 강화 방안 논의

박형준 시장, 각 대사와 다양한 방면에서 부산시와의 교류·협력 강화 방안 논의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16일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콜린 크룩스(Colin Crooks) 주한영국대사와 누르갈리 아리스타노프(Nurgali Arystanov) 주한카자흐스탄대사를 차례로 만나 부산시와의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를 만나 "미래를 향해 발전하는 국제 중심도시(Global Hub City) 부산 방문을 환영한다"라며, "바쁘신 중에 부산을 찾아줘 감사하다"라고 환영 인사를 전했다.

크룩스 대사는 "새해 첫 출장지로 부산에 왔는데, 부산에 올 때마다 반갑고 기쁘다. 반갑게 맞아줘 감사하다"라며, "지난해 11월 한-영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다우닝가(街) 합의'를 채택한 이후로 부산-영국 간 협력 기회가 더 많아졌다"라고 부산-영국 간 교류·협력 확대를 환영했다.

이에, 박 시장은 "지난해 영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글로벌) 에너지기업이 국내 해상풍력사업에 투자하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라며,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할 부산에서 투자 확대와 협력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주한영국대사 접견을 마친 다음, 박 시장은 오후 2시 누르갈리 아리스타노프



프 주한카자흐스탄 대사를 만났다.

박 시장은 아리스타노프 대사에게 "원유와 가스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카자흐스탄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다"라며, "부산은 2022년 중앙아시아 도시 중 최초로 카자흐스탄 알마티와 우호협력 도시 협정을 체결하고, 다양한 협력 행사와 교류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아리스타노프 대사는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개최를 축하

한다. 카자흐스탄은 과거부터 실크로드의 중심지였을 뿐 아니라, 지금도 아시아-태평양양 중국, 유럽을 잇는 물류 루트를 개발하고 있는 만큼, 부산과 좋은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고 화답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에는 협정 체결 1주년을 기념해 8월과 11월, 알마티와 부산에서 각각 1주년 기념 음악회와 경제협력 포럼 등의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라며, "부산은 국제관광도시가 되

기 위해 많은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들 상호 간 방문도 더욱 활성화될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중앙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로서 카자흐스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부산과의 협력관계가 더욱 활성화될 기대한다"라며, "오늘 만남을 계기로 글로벌 허브도시로 나아갈 우리 부산과 카자흐스탄과의 관계가 새롭게 도약하길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봉화군, 2024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봉화군은 16일 본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배진태 부군수 주재로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목표, 집행률 제고방안, 대규모 투자사업 중점 관리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상반기 집행의 최대화를 통해 재정운용의 선순환과 연말 예산집행 슬림 방식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는 중점정책이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라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부출을 통해 지

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고자 실시하고 있다.

배진태 부군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집행으로 군의 경제활성화와 군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서는 계획한 목표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선일/기자

청송군, "군민 곁으로 찾아가는 지적민원처리반 운영"

청송군은 매년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 오지 마을을 방문해 지적관련 민원을 접수·처리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있는 '찾아가는 지적민원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16일에는 파천면 어천1리 경로당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지적민원처리반'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지적측량 등의 민원을 원활하게 상담·처리하기 위해 군청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합동 처리반을 구성하여 운영된다.

지난해 총 13개 마을을 방문해 토지이동(75건 84필지), 지적상담(18건

22필지) 등 총 93건 106필지의 민원을 현장접수 처리했으며, 앞으로는 경로당·마을회관 이외에도 전통시장·집중사과축제장 등과 같이 주민들이 집중하는 곳을 방문하여 지적민원 현장처리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찾아가는 지적민원처리반 등을 비롯한 각종 민원편의 시책추진 및 제도개선으로 행정신뢰도를 높이고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지역특화활동가 양성과정 수료

영양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에서는 22년부터 현재까지 17개 액션그룹을 발굴하여 1단계 소액지원사업과 다양한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지역 특화활동가 양성과정은 지난 23년 12월부터 24년 1월초까지 진행된 지역활동가(퍼실리테이터) 전문 자격과정에 이은 심화과정으로 1월 23일부터 2월 15일까지 총 6회차 교육을 실시해, 16명의 지역특화활동가를 배출했다.

이번 교육 과정은 지역활동가(퍼실리테이터) 전문 과정을 수료한 수강생이 참여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토론 중심의 과정으로 저출산에 따른 지역소멸, 청년일자리, 장애인 및 소외계층 등 다양한 지역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들을 모색했다.

영양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은 지역활동가 전문과정을 통해 배출된 수강생들이 이번 특화교육 수료로 액션그룹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 지원, 조정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마련했다고 보고 앞으로 본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과정으로 배출된 지역특화활동가들이 액션그룹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과의 왕성한 교류 및 활동으로 지역 내 문제들을 스스로 찾아 하나씩 해결하여 마을에 새로운 활력이 솟아나고 지역경제가 되살아나 살기 좋은 농촌도시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안동시 (사)농촌지도자안동시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개최



(사)농촌지도자 안동시연합회는 2월 16일 농업기술센터에서, 화합된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구 임원진 상호 간에 공감대를 조성해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22·23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취임식은 농촌지도자 안동시연합회와 읍면동 농촌지도자회 신·구 임원을 비롯해 유관기관 단체장 등 11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감사패와 공로패 전달, 신·구임원 인사, 이취임사, 축사, 기념촬영 등으로 이어졌다.

(사)농촌지도자 안동시연합회는 우애, 봉사, 창조의 정신을 토대로, 과학영농과 농촌문화 창달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지역사회에서 농가 소득 증대와 농민 복지 향상, 지역 발전을 주도할 목적으로, 20개 읍면동 농촌지도자회와 1,000여 명의 연합회원들로 조직됐다.

지난 반세기 동안 농촌 현장에서 녹색혁명을 완수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다해, 풍요로운 복지농촌을 건설하는데 앞장서 왔다.

이날 김석규 연합회장은 취임사에서

"회원들이 농촌에 쏟아왔던 열정을 바탕으로 새시대 희망찬 농촌 건설에 앞장서, 농업 현장에서 새로운 농업기술을 발굴하고 첨단농법을 도입해, 과학영농을 선도 실천해 나가자"라고 역설했다.

농촌지도자 안동시 연합회는 앞으로 회원배가운동을 통해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과학영농 선도실천과 더불어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촌과 농업의 자구적인 노력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윤근수/기자

경북도,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사업으로 국비 16억원 확보

지방이 선도하는 생활물류 정책, 교통안전·생활민원·탄소저감 기여

경북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2024년도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에 김천·아파트 택배길등 해결을 위한 생활물류 상생플랫폼' 실증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4년 실증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부터 두 달간('23.11~'24.1) 공모를 시행했으며, 총 10개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 계획을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해 사업 내용이 우수하고,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5건의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김천 사업은 2024년 한 해 동안 총사업비 32억원(국비 16억원, 지방비 16억원)이 투입되며 공영주차장 기반의 생활물류

공용센터에서 시민공유형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활용하여 실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현재 물류 취약지역인 김천시에는 물류센터가 없어 인근 도시에서 매일 중장거리로 택배물량이 배송되고 있어 배송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김천시 내의 공영주차장을 활용한 물류센터를 구축하여 일정 생활물류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여 배송의 효율성을 높인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경우 높이가 약 2.3m로 택배 트럭(2.5m)의 경우 출입이 불가능하고 통상 지상을 통해 택배를 배달했으나, 최근 대다수의 아파트에서 안전의 이유 등으로 지상 출입을 금지하고 있어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택배대란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친환경 배송기기인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활용하여 아파트 지역 배송은 물론 좁은 골목길 등에서 안전성과 효율성을 실증한다.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이번 실증사업은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전국 최초로 공영주차장에 구축된 물류센터를 통해 배송의 효율을 높이고, 친환경 배송기기인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통해 생활민원(교통사고, 택배반납배송) 감소, 탄소저감 등 급변하는 생활물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역을 넘어 전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2024 꿈의 오케스트라 포항 본격 시동, 함께 할 단원 모집

꿈의 오케스트라 자립거점 기획사업 선정, 국비 2,500만 원 확보

포항문화재단은 2024 꿈의 오케스트라 포항 신규단원을 19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3월부터 12월까지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되며 포항 아동·청소년이 음악을 통해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포항시에 거주하는 10세부터 16세까지 아동·청소년이면 신청가능하며, 문화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한다.

바이올린, 비올라, 콘트라베이스 등 8개 악기파트 총 20여 명을 모집하며, 오케스트라에 열정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다면 악기를 배운 경험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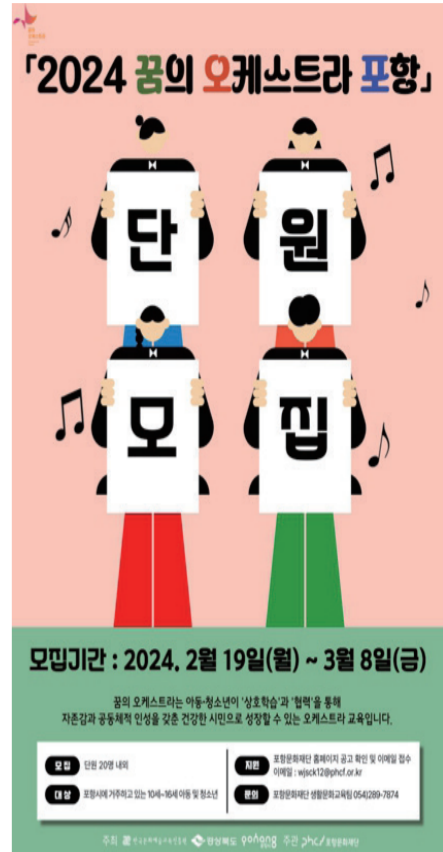
신청 방법은 포항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메일로 보내면 된다.

선발된 단원에게는 교육기간동안 악기를 무상 제공한다. 예술 강사로부터 악기 연주법 및 다양한 앙상블 교육을 통해 연말 정기연주회까지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올해 포항문화재단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주최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자립거점 기획사업 '꿈의 향연'에 선정됐다. 오는 5월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에 맞춰 '바다'를 주제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포항문화재단 관계자는 "우리 도시의 아동·청소년이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즐겁게 음악을 배우고 나누길 바란다"며 "이번 신규단원 모집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윤타용/기자



의성군-(사)한국손해평가사협회, 업무협약 체결

농업 재해 대응 능력 강화

의성군은 농업 재해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사)한국손해평가사협회와 손을 맞잡았다.

이상 기후의 빈번한 발생에 따른 농업 분야 재해 대응 능력을 사전에 강화하고자 김주수 의성군수와 박연수 (사)한국손해평가사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성군과 (사)한국손해평가사협회가 2월 16일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농업 재해 보험법에 대한 군민 교육 지원, 손해평가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물적, 인적 자원 지원 등이다.

이날 협약으로 의성군과 (사)한국손해평가사협회는 농업인 재해보험 교육과 손해평가사 전문능력 배양 교육 협조 등 상호 협력하며 이를 통해 농업 재해 대응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의성군 농업 발전을 위한 (사)한국손해평가사협회의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이번 협약으로 농업인들이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농작물 재해보험 교육을 받고 자연재해에 미리 대비할 수 있을 바란다"고 밝혔다.

정금자/기자

영주시, 하반기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 착공...제2의 전성기 연다

산·학·연 집적 국내 최대 베어링 클러스터 조성 '가속'

경북 영주시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시는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인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의 '제2의 전성기'를 열겠다고 16일 밝혔다.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은 총사업비 2964억 원을 투입해 적서동과 문수면 일대에 118만5971m²(약 36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베어링(전·후방 포함), 기계, 경량 소재 등 총 16개 업종을 유치할 계획이다.

국가산업단지 건설을 통해 지역 내 고용 창출, 인구증가, 세수 확대 등 경제 효과는 물론, 미래산업의 핵심 부품 기술 자립화라는 국가적 차원의 목표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베어링 국가산단은 영주시가 오랜 기간 노력해 온 주력 사업의 하나로, 2018년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2020년 10월 지방 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 통과, 2021년 3월 사업실시협약 체결, 2022년 4월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과 지난해 8월 국토부 최종 승인까지 지역 안팎에서 노력을 기울인 결과 경북 북부권 최초의 국가산업단지 조성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시는 국가산단의 성공과 빠른 조성을 위해 현 5월 협의 보상을 시작으로 8월 착공, 2027년 준공할 계획이다.

기업 유치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인프라 구축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기업 유치가 중요한 만큼, 하드웨어 건설과 더불어 기업 유치에도 힘쓰고 있다.

영주에는 2018년 준공된 국내 유일의 베어링 전문 연구기관인 하이테크 베어링시험평가센터와 경량소재융합기술센터 등 이미 입주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가운데, 2025년까지 베어링제조기술센터와 경량소재표면처리기술센터를 추가로 건립해 국내 최대의 베어링 클러스터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업 수요에 맞춘 현장·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동양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스마트기계공학'을 신설하

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재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공학적 기초지식, 3차원 설계, 기계 제작 등 전문 지식을 갖춘 실무형 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시는 성공적인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소재·부품 산업의 발전을 이룰 유망기업을 유치에 달려있다는 판단하에 베어링 제품의 설계부터 성능평가, 제품화까지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전(全)주기 맞춤형 기업 지원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기업의 입주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기업이 모여드는 매력적인 투자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첨단베어링 중심도시 영주, 제2의 전성기로 도약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이 성공적으로 조성되면 연간 760억 원의 경제 유발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4700여 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을 통해 1만여 명의 인구증가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여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첨단산업이 꽃피는 곳에 인재가 모여들기 마련이다"라며, "영주는 물론 대한민국 부품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미래형 산업단지로 조성해 나가겠다"며 굳은 각오를 밝혔다.

경북 북부지역 최초의 국가산업단지인 만큼, 올해부터 관련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영주시가 앞으로 소재부품산업 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금자/기자



영덕군, 2025년까지 공공매입임대주택 50호 건립

영덕군은 지방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군민에게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14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경상북도개발공사와 지역 맞춤형 공공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공매입임대주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등에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매매 등으로 취득해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협약에 앞서 영덕군은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관내 주택 수요

자들이 원하는 주거 양식, 주택 형태, 매입 유형 등을 조사함으로써 지역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으로 이번 사업을 설계했다.

이를 바탕으로 영덕군은 군민에게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주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까지 임대주택을 준공하고 같은 해 연말까지 매입 및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이번 협약은 영덕군 측에서 지역 맞춤형 공공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행정을 지원하고

경상북도개발공사 측에서 양질의 주택 건설과 효율적인 운영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역 맞춤형 공공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효과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최소한 주거에 대한 문제나 불만으로 지역을 떠나는 군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번 사업이 지역의 주거 안정은 물론 지방의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문화/기자



울진대게와 붉은 대게 축제 안전하게 즐기세요~

울진군 축제 안전을 위해 철저한 사전 대비



울진군은 22일부터 25일까지 후포항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4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

군은 지난 14일 울진군재난상황실에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실무위원회 회의는 축제 주관부서의 안전관리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각 분야 전문위원들과 해안가 추락에 대비한 안전관리 전략, 주차 문제 및 긴급차량 통로 확보를 위한 교통 대책 등 유형별 조치사항과 비상연락 체계 구축 등 인파 밀집에 대비한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울진군은 심의회에서 나온 여러 보완

사항들을 안전관리계획에 수정 반영하여 오는 21일 경찰, 소방,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 전문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울진의 대표적 명품브랜드인 대게를 주제로 펼쳐지는 축제인 만큼 관광객과 주민들이 대게와 붉은대게를 비롯하여 후포항의 다양한 해산물 먹거리를 푸짐하게 맛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주민과 관광객들이 불편함 없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전했다.

2024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는 "맛있는 대게여행, 후포항에서 모이자"라는 주제로 후포항 일원에서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개최된다.

장문화/기자

경주시, 3억 들여 오릉돌담길 경관 조명 설치

청사초롱 형상 가로등 24개 및 난간 간접 조명등 새롭게 설치

경주시가 사업비 3억원을 들여 추진한 '오릉돌담길 가로경관 개선사업'을 모두 마무리 지었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라달밤 황금조명 갤러리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경관 심의 및 문화재 협의를 완료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오릉돌담길은 경주 IC에서 경주 시내로 들어오는 관문으로 황리단길, 동부사적지, 교촌마을, 남산지구와 함께 지역의 관광 명소다.

이에 시는 오릉돌담길 가로등 노후에 따른 잦은 고장과 어두운 가

로등을 개선하기 위해 가로등 24개를 청사초롱을 형상화한 전통문양 가로등으로 교체하고, 문천교 난간에 간접 조명등을 새롭게 설치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오릉돌담길 야간 경관 조명사업으로 인근 지역 주민의 보행 안전과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경주시는 앞으로도 구시가지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경관 사업을 발굴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타용/기자



경북도 월동 병해충 증가 예상, 방제 준비 철저 당부

올겨울 잦은 비, 따뜻한 날씨로 병해충 발생량 증가 예측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올겨울 잦은 비와 따뜻한 날씨로 병해충 발생이 예년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농가에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

올겨울은 평균기온이 2.3℃로 평년(0.6)보다 1.7℃ 높았고, 강수량은 162.7mm로 평년(71.3)보다 91.4mm(228.2%) 많았다. 이러한 이상기후로 인해 노균병, 탄저병,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등 주요 병해충 발생이 빠르고 발생량도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월동 해충의 경우 겨울철 고온이 지속되면 해충의 발육영양도 및 유효적산온도가 예년보다 일찍 충족돼 부화시기가 5~10일 빨라지고 개체수도 많아져 주의가 요구된다. 또, 최근 한 달 일조시간은 152시간으로 평년(177.6)보다 25.6시간 적어(85.6%) 시설재배 작목인 오이, 딸기, 참외 등에서 햇빛곰팡이병, 노균병

등의 발생률이 높아 철저한 관리와 방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봄철 월동 병해충 방제 방법으로 지난해 병해충이 많았던 재배지에는 낙엽, 과실 등 잔재물을 제거하고 기계유제, 석회유황합제를 살포해 발생 밀도를 줄여야 한다. 사과, 배, 포도 등 과수의 경우 줄기 껍질을 제거하면 깍지벌레, 응애 등 월동 해충의 밀도를 낮출 수 있다. 조영숙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이번 겨울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와 많은 비로 주요 병해충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속적인 예찰과 적기 방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먹거리도 풍족하게, 통영시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금자리가 되겠습니다.

통영시, 2024년 고향사랑기금으로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동 간식비 지원' 사업 시작



통영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은 "아이들이 충분한 먹거리와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며 "지역아동센터장님들께서는 시설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아동의 건강과 안전한 돌봄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유국 여성가족과장은 "아이들이 충분한 먹거리와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며 "지역아동센터장님들께서는 시설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아동의 건강과 안전한 돌봄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준/기자

부산시, '부산 창업지원사업 합동설명회' 개최!

창업 진입에서부터 다양한 성장 단계에 머물러있는 창업자들의 어려움 해소 기대

부산시는 오는 20일 오후 2시 부산 유라시아플랫폼(동구 부산역 소재)에서 10개 창업지원기관과 함께 '2024년 부산 창업지원사업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예비)창업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지역대표 혁신 창업공간인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개최하며, (예비)창업자, 창업기업을 비롯한 유관기관, 단체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부산테크노파크 등 10개 창업지원기관이 참여하여,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등에 기관 시책 설명과 상담 등을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추진될 지역 내 각 창업지원기관의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창업지원기관과 분야별 전문가의 현장 상담을 통해 창업 진입에 막연함을 느끼는 예비 창업자와 기업경영에 애로사항이 있는 창업기업가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는 1부 시책 설명회와 2부 현

장 상담으로 구성되며, 1부에서는 부산 경제진흥원 등 9개 기관에서 창업지원사업 및 정책자금을 설명한다. 2부에서는 9개 창업지원기관과 3개 분야(경영일반, 세무, 특허) 6명의 전문가가 1:1 맞춤형 현장 상담을 진행한다. 1부 시책 설명회와 2부 기관별 상담은 현장 접수로 참여할 수 있으나,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은 부산창업포털을 통한 사전등록자 우선으로 진행된다. 이날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하며, 온라인 중계는 창업 유튜브 채널 B스타TV를 통해 실시간 송출한다. 유라시아플랫폼 내 실시간 중계 장소를 추가로 마련하여, 행사장이 혼잡할 경우 3개소(105, 107, 108호)에서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볼 수 있다. 7개 분야 156개 사업 내용을 수록한 '창업지원사업 안내 책자'를 현장에서 배부하고, e-book으로도 제작하여 부산창업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다. 손승은 시 금융창업정책관은 "이번 설명회가 창업 진입에서부터 다양한 성장 단계에 머물러있는 (예비)창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창업자들이 원하는 창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라며, "우리는 창업자들이 더 나은 도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창업자들과 함께하는 '창업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김희태/기자



더 나은 환경, 더 좋은 물로 군민이 행복해지는 '산소카페 청송군'

청송군, 2024년 환경분야 추진계획 발표

청송군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전반의 녹색전환을 뒷받침하고 더 맑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더 나은 미래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청송군을 만들기 위해 2024년 환경 분야의 군정 추진방향을 "더 나은 환경, 더 좋은 물로 군민이 행복해지는 미래환경 구현"으로 정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청송군의 청정한 자연생태계를 유지 보존하기 위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질병확산방지 사업 등에 58억원을 투입하고 지방도로 단절된 생태축을 연결하는 질고개 생태통로 조성사업을 3년간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고 로드킬 감소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탄소중립 본격이행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군정 소관 부서별로 긴밀히 협력하여 탄소감축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사업비 27억원을 투입,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 지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정보기기(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노인, 어린이 등이 미세먼지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우리지역 대기환경정보를 상시로 나타내는 미세먼지 신호등 1개소와 초미세먼지와 바이러스 차단효과를 거둘 수 있는 스마트 에어 샤워기를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1개소를 설치하고 노후슬레이트 처리에도 사업비 9억원을 투입하여 건축물에 사용된 슬레이트 및 방치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처리하여 군민들이 생활 속 환경 안전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군민들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2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위탁 적기처리로 폐기물 적체를 최소화하고 환경오염 예방에 앞장서고자 하며, 농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거 촉진과 배출 장소 개선을 위해 4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동집하장 및 재활용품네마당을 설치할 예정이고 재활용품(종이팩, 폐전지) 교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지방상수도 시설확충사업[진보상수도 시설확장공사(총사업비 420억-예정), 안덕(현서)-부남상수도 시설확장공사(총사업비 253억)] 및 정비사업[청송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1차(청송읍-진보면: 사업비 280억), 청송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2차(주왕산-부남-안덕-현동-현서면: 200억), 청송군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구축사업(사업비 143억)]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특히, 2023년에 준공된 청송상수도 시설확충사업(사업비 398억)은 지방상수도 미급수 880세대 1,792명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했고, 연이어 추진하는 안덕(현서)-부남상수도 시설확장공사 또한 2023년에 순조롭게 착공하여 2026년 12월까지 해당 지역의 670세대 1,208명에게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진보상수도 시설확장공사(420억)는 진보정수장 내구연한 증가로 인한 시설개량 및 선진화를 통해 용수용량 증가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북북부교정시설의 우리군 지방상수도 공급구역 편입은 향후 여차교도소 유치 등 관련사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들이 완료되면 지방상수도 급수보급률(77.3%→86.1%) 향상 및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공중위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효과가 입증된 사업을 연이어 청송군 전역으로 확대·추진할 수 있게 된 만큼 더 높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대구를 바꾸는 100가지 방법, '2024 제1회 시민공익활동가 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대구 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

Informational graphic for the '2024 Citizen Public Activity Volunteer Academy'. It features a banner with the title and a table of details. The table lists the purpose (improving Daegu), dates (March 7th), and contact information. It also includes a QR code and a list of participating organizations like the Daegu Citizen Public Activity Volunteer Center and various NGOs.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공공작 센터장 ▲NOPE(늘) 최승은 대표 ▲사회적협동조합 '행복빌' 강문주 대표의 발표순으로 센터와 시민들이 이끌어나갈 대구 지역의 변화를 확인하고, 작은 공익활동 아이디어가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고 더 나아가 시민이 주체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들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아카데미 참여자에 대해서는 '2024 첫 도전 씨앗' 프로젝트 공모사업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시민공익활동가 아카데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방문(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101, 3층) 등을 이용하면 된다. 이재홍 대구광역시 행정국장은 "지방소멸, 환경파괴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일상 속에서의 작은 실천 등 주체적인 활동으로 이어져 지역공동체에 좋은 변화를 일으키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는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자발적인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2024 제1회 시민공익활동가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2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시민공익활동가 아카데미'는 대구광역시에서 위탁 운영 중인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센터') 주최로 3월 7일 오후 2시 혁신공간 '바람'(중구 중앙대로 402)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더 나은 대구를 만들기 위한

마지막으로는 군은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적극 나선다. 청송군은 미처리 소규모하수처리 구역인 파천면 신기리, 안덕면 신성리, 주왕산면 상평리-지리에 총사업비 275억원을 들여 환경부 재원협의를 거쳐 현재 공사 착공에 들어갔으며 하수처리장 3개소, 하수관로 17.5km, 배수설비 444가구 등 본격적으로 농



소원 빌고 액운 쫓자...영등포구, 곳곳서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열려

도심 속에서 접하기 어려운 세시풍속과 전통문화 체험의 자리



영등포구가 새해 첫 보름달을 맞아 한 해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고, 가족 및 이웃과 함께 전통문화를 즐기는 '정월대보름 민속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의 대표 전통축제인 '정월대보름 민속행사'는 도심 속에서 평소 접하기 어려운 세시풍속을 체험하고, 한 해의 행복과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자리이다. 오는 17일 토요일을 시작으로 25일 일

요일까지 18개 동에서 연이어 행사가 열린다. ▲17일에는 영등포본동, 당산2동, 대림1·3동 ▲24일에는 영등포동, 여의동, 당산1동, 양평1동, 도림동, 신길4·5·6·7동, 대림2동 ▲25일에는 문래동, 양평2동, 신길1·3동에서 진행된다.

행사는 각 동 직능단체에서 주관하며 제기차기, 윷놀이, 널뛰기, 투호 등과

같은 친숙한 민속놀이부터 동별 특색에 맞는 공연, 소원지 작성 등 다양한 체험이 펼쳐진다.

아울러 24일, 저녁 7시 오목교 아래 안양천 둔치에서는 축제의 묘미인 '달집태우기'와 겨울밤을 화려하게 수놓는 '불꽃놀이'가 행사의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구민들은 나뭇가지와 벼짚을 쌓아 올린 대형 달집에 불을 붙여 액운을 태워버리고, 가정의 평안과 만복을 기원한다. 동시에 안양천의 밤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불꽃놀이는 행사의 하이라이트이다. 뒤이어 연날리기, 장구 공연, 강강술래가 펼쳐진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더 풍성한 정월대보름 민속행사가 잊혀져가는 전통문화를 되새기고, 새해의 희망찬 출발을 기원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며 "올 한 해도 풍성한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영등포구가 따뜻한 동행을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박향신/기자

청년예술인이 활짝 피어나요~ 서초구, '찾아가는 꽃자리콘서트' 참여 청년예술인 모집

구, 작년 50팀에서 올해 60팀으로 '찾아가는 꽃자리콘서트' 참여 단체 모집 확대

서울 서초구가 청년예술인들의 거리음악공연인 '2024 찾아가는 꽃자리콘서트' 무대에 설 재능있는 청년 공연단체 60팀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꽃자리콘서트'는 청년예술인들이 지역 내 야외 공간으로 찾아가 클래식, 재즈, 대중음악, 국악, 마술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이는 음악 콘서트다.

지난 2018년 시작해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콘서트는 4월부터 11월까지 서초구 거리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지난해까지 총 365팀, 1,371명의 청년예술인이 참여했는데, 청년들의 열정과 재능을 가까이서 확인한 관객들의 반응이 뜨겁다.

공연자들 역시 "양재천의 가을 밤공기를 함께 느끼며 관객들과 호흡하는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실력을 키워서 더 좋은 공연을 하러 돌아오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올해는 더 규모를 키워 지난해 50팀이었던 공연단체를 60팀으로 확대 모집한다. 거리공연이 가능한 클래식, 대중음악, 재즈, 국악, 마술, 춤 공연 등 문화예술 전 분야에 걸쳐 19시부터 39세의 청년예술인 단체면 지원 가능하며, 모집은 오는 26일까지다.

단, 더 많은 청년예술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올해 구에서 주최하는 문화사업 또는 공연에 이미 선정된 단체는



제외한다.

접수가 완료되면 공연 역량과 작품성, 관객과의 소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영상심사를 거쳐 최종 공연단체를 선정한다.

3월 중 선정 결과 및 추후 일정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된 공연 팀에게는 팀당 1~2회의 공연기회가 주어진다.

이와 함께 1인당 20만원, 1팀당 최대 80만원의 공연료와 무대·음향장비를 지원해 청년예술인들의 역량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꽃자리콘서트'는 4월부터 11월(7월 부터 8월 폭염기 제외)까지 매주 화요일 부터 토요일 점심(12 부터 13시) 또는 저녁시간(18 부터 19시)에 권역

별 거점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서초권역은 '강남역 바람의언덕' ▲반포권역은 서래마을 내 '파리15구 공원' ▲방배권역은 방배카페골목 인근 '방배뫼별공원' ▲양재권역은 '양재천 수변무대'다.

이외에도 올해는 권역별 골목상권 등 장소를 더욱 확대해 구민들의 삶 가까이 다가갈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들의 일상 속, 실력 있는 청년 예술인들의 다채로운 문화예술공연 개최로 구민들이 문화 향유 기회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흥수/기자

관악구, 급증하는 지역주택조합 주민 피해 예방에 총력!

토지 매입 지연과 정체, 사업 추진 장기화 등으로 인한 잦은 분쟁과 소송 등으로부터 주민 보호

관악구가 지역주택조합 피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단계 폐해 예방을 위해 모집신고(공개모집)제가 도입되어 있지만, 조합원들의 피해는 여전히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를 득한 후 향후 토지 매입 등 실제 사업 추진보단 무분별한 조합원 모집과 조합비 축적에 주목적용을 두고 있는 사업장이 많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토지 매입 지연과 정체, 사업 추진 장기화 등으로 잦은 분쟁과 소송 등이 빈번히 발생하기도 한다.

중국어는 희생이나 파산으로 끝을 맺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유사조합까지 가세하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구는 주민 피해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 확



산 방지 및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먼저 구는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인 문제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관련 부서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모집신고 요건 강화(소유권 15% 확보 추가) ▲권원 확보 시 검인 양식 사용 ▲파산 등 사업 추진 불가능한 사업장 직권 취소 도입 등의 내용을 건의하고 주민 보호에 앞장섰다.

또한 그 간 진행했던 홍보활동을 더욱 확대, 강화한다.

▲현수막 수시 제작, 게시 ▲관악형 피해 예방 리플릿 제작, 배포 등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와중이지만 구민들의 물적, 정신적 피해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대책 마련에 온힘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소유가 아닌 공유로 함께해요! 성동구, 공유촉진사업 추진으로 공유 문화 확산 노력

지역자원의 공유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지역 사회 공유경제 활성화 기대

서울 성동구가 공유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공유 촉진 사업을 지속해서 펼쳐 나간다.

성동구는 지난 2일 제1차 공유촉진위원회 개최하여 공유촉진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공유촉진사업은 지역의 유휴공간, 물건, 공간, 재능 등 지역자원의 공유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사회 공유경제를 활성화 하는 사업이다. 성동구는 공유촉진을 위한 성동공유센터, 모두의공간, 다락옥수 등의 공유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성동공유센터(성동구 행당로6길 10)는 서울시 자치구 유일의 단독 공유센터로 공구, 생활용품, 캠핑용품 등 총 830여 개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이 원하는 가까운 지역에서 대여한 물건을 수령 할 수 있도록 거점 배송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복지관, 도서관 등 각 동 주요 기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과 협약을 맺어 현재 총 15개소의 거점 배송지를 운영 중이다.

물품 대여 이외에도 고장 난 물건을 고치는 리페어카페, 공유시민 캠페인 등 다양한 공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유주방, 공유서거, BBQ파티 공간 등 공간공유 사업도 진행한다. 자세한 물품 보유 현황은 성동공유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여 신청은 온라인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

한양대학교 사거리 인근의 한양광장 '모두의공간'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유공간이다. 4~6인실과 8~10인실 2개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규모 회의, 모임, 그룹 활동 등 다양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시간당 4~6인실은 1,000원, 8~10인실은



2,000원으로 이용을 원할 경우, '모두의공간' 전용 모바일앱을 통해 예약하면 된다. 올해는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간 이용을 더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락옥수는 옥수역 고가하부에 위치한 공공복합문화공간이다. 2018년 개관 이후 지역주민들의 심터이자 문화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특히, 북카페, 문화강좌, 문화체험 행사 등을 운영해 주민들에게 폭넓은 문화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성동구는 올해 공동체 공간인증 시범사업도 운영한다. 공동체 공간인증 사업은 지역에 있는 개인공간이나 공방, 카페 등의 사업장을 주민들이 공유하고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을공동

체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6개 공간을 선정해 최대 16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물품, 공간 등을 '소유'에서 '공유'의 개념으로 전환하는 다양한 공유촉진사업을 운영함으로써 공유문화가 지역 곳곳에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Art Valley ASAN

시민과 함께하는
복합 문화예술플랫폼이
펼쳐집니다

고품격 문화예술 도시 아산
신정호 아트밸리를 품다

강원특별자치도, 미세먼지경보제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하세요!

미세먼지 경보제 발령상황 문자알림 서비스 개시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은 미세먼지로부터 도시민의 안전한 생활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2024년 1월부터 고농도의 미세먼지 발생 시 도민에게 행동 대응요령 등 주의보 발령 정보를 신속하게 알리는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문자알림 서비스 시간은 연중 07:00부터 22:00이며, 강원도민은 누구나 강원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연구원은 18개 시군에 설치된 26개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수집된 미세먼지와 오존 등의 대기환경상황을 비상근무조로 편성하여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감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미세먼지가 체내에 들어가면 여러 장기에 활성산소가 전달되어 세포노화를

촉진시키고, 염증반응을 유발하여 조직 손상까지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작용은 혈류를 따라 전신에 작용하므로 미세먼지 영향은 단지 호흡기에 그치지 않고 신체 다양한 장기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임산부, 영유아, 어린이, 노인, 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신인철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고, 도민에게 신속하게 대기환경상황을 전파하도록 노력하겠다" 며, "경보가 발령되면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차단 성능을 허가 받은 마스크 착용을 권장드린다"고 밝혔다.

강호철/기자



박경귀 아산시장, 충남아산프로축구단 전지훈련지 격려 방문



충남아산프로축구단(이하 충남아산 FC) 구단주인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난 15일 2차 동계전지훈련지인 전라남도 순천시를 방문해 선수와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날 박 시장은 부산교통공사축구단과의 연습경기를 관전하며 선수들을 응원하고, 2024시즌 전력 및 경기력을 확인했다.

이후 저녁 만찬을 통해 김현석 감독을 포함한 코칭스태프와 선수단의 사기를

를 진작하고, 주장단과 외국인 및 신입 선수 개개인에게 응원의 말을 건넸다.

박 시장은 "이순신 정신을 바탕으로 동계전지훈련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고, 2024년 새로 들어온 선수들과 기존 선수들이 이번 훈련을 통해 팀워크를 다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들이 흘린 땀이 3월부터 시작되는 시즌에서 좋은 결과로 나타나길 바라며, 아산시도 구단을 위해 열심히 지원하고 끝까지 응원하겠다"고 선수단을 독려했다.

한편, 충남아산FC는 3월 3일 수원 삼성블루윙즈와의 원정경기를 통해 2024시즌을 시작하며, 3월 9일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홈 개막전을 가질 예정이다.

김원호/기자

충남도, 고품질 쪽파 생산...생육 재생기 관리 중요

도 농기원, 수량·품질 향상 위해 적정 시비·병해충 방제 강조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고품질 쪽파 및 종구 생산을 위해서는 생육 재생기 비료 관리와 병해충 방제가 중요하다고 18일 밝혔다.

양념채소 중 하나인 쪽파는 대표적인 인경채소 작물로, 전년도 파종해 월동을 거쳐 봄철 기온이 상승하면 신초와 새 뿌리가 자라나면서 생육이 활성화되는데 이 시기를 생육 재생기라고 한다.

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2월 평균기온

이 평년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쪽파 생육 재생기가 2월 중순 시작될 것으로 예측 중이다.

생육 재생기에는 10a(300평)당 질소(5kg), 칼륨(3kg)에 칼슘이 함유된 비료를 웃거름(추비)으로 주면 잎과 뿌리 생육을 촉진할 수 있지만, 적정 시비량을 초과하는 경우 신초와 뿌리가 상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 낮 기온이 상승하면서 월동기에

고사한 잎 주변으로 잿빛곰팡이병과 흑색썩음균핵병 등이 발병할 수 있으며, 땅속에 잠복해 있던 뿌리응애 등 해충도 활동을 시작해 피해를 줄 수 있다.

병해충이 발생하면 쪽파에 등록된 플루디옥소닐(살균제), 디메토(살충제) 등의 적용약제로 발생 초기 방제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신재철 도 농업기술원 양념채소연구소 연구사는 "봄철 고품질 쪽파 생산



은 생육 재생기 적정량의 추비와 병해충 예방·관리가 성패를 좌우한다"라며 "겨울 동안 고사한 쪽파 잎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고, 전년도 병 발생이 많은 포장에서는 지속적인 예찰 및 방제에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정근/기자

태백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환경 합동점검 실시

태백시는 지난 8일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태백경찰서와 함께 불법 촬영 카메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실명절 연휴를 맞이하여 실시한 이번 점검은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합동점검반은 관내 공중화장실 17개소를 대상으로 탐지 장비를 활용,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및 안심비상벨 작동 여부와 화장실 위생상태 점검 등 안전·위생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태백시는 앞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역, 터미널, 공원, 관광지 등 관내 공중화장실 30여 개소를 을 연말까지 순회 점검을 시행하고,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와 직접 연결되는 안심비상벨 시스템 운영과 출입구 CCTV 운영 등 상시 방범체계를 구축 및 증설할 계획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하여 태백시민 및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범죄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유상근/기자

충북도, K-유학생 관련 명예대사·국제자문관 영상회의 개최

충북도 명예대사 및 국제자문관 15개국, 30명 참여



충청북도는 16일 도 역점사업인 K-유학생 제도에 대한 설명과 유치전략 논의를 위해 충청북도 명예대사·국제자문관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두환 경제통상국장, 이영은 특별보좌관 등 관계 공무원과 도에서 위촉한 명예대사와 국제자문관 15개국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영환 지사는 K-유학생 유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공적인 K-유학생 유치와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외 현지에서 활동 중인 명예대사와 자문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도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유학생 유치 활동의 선봉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영은 특별보좌관은 충북도 K-유학생 유치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하며, 유학(D2)이나 어학연수(D4) 비자별 모집절차 예시와 구비(제출)서류 등을 참석자들에게 자세히 안내했다.

회의에 참석한 인도네시아 채환 명

예대사는 현지 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전하며 "각자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충북의 K-유학생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명예대사·국제자문관 영상회의를 통해 구축한 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홍보와 협력을 이어가는 등 K-유학생 유치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갈 계획이다.

고정화/기자



NH NongHyup 100% 영양고추

품질 관리를 위해 계약재배로 생산합니다

500g

남영양농협가공사업소

서울시, 청년 목소리 담은 정책 제안할 서울 청년 500명 뽑는다

청년주도 정책과 아이디어 통해 청년의 삶과 생활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

올해로 운영 10년차를 맞이한 서울시 청년참여기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청년의 목소리와 현실을 반영한 체감도 높은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갈 서울 청년 500명을 모집한다.

'서울청정넷'은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가장 잘 안다'는 취지에서 2013년부터 운영 중인 청년참여기구다. 그동안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청년수당 ▲청년 마음건강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등 서울시 대표 청년정책이 서울청정넷 제안에서 시작됐다.

올해부터는 서울청정넷의 효율적인 구성과 운영을 위해 신청 및 선발방식을 개선해 서울시정에 관심이 많고 의지가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정책제안에 집중돼 있던 활동을 정책모니터링·현장방문·사회봉사 등으로 확대해 정책 고도화는 물론 청년들의 경험 형성에도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먼저, 서울청정넷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참여동기와 관심분야 등을 기재한 활동신청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

다. 그동안은 시장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이름 등 기본 정보만으로 신청이 가능했으나, 참여의지가 강한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활동기회를 주기 위한 시도다.

선발방식도 서울시 정책에 청년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를 균형 있게 담기 위해 공정한 추첨제를 택했다. 추첨은 모집기간 내에 활동신청서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시정 참여 관련 사전교육을 이수한 청년을 대상으로 연령·성별·거주지역·참여경험 등을 고려해 이뤄진다.

이렇게 선발된 청년들은 서울청정넷 위원으로 위촉돼, ① 기후·환경 ② 문화·예술 ③ 사회안전망 ④ 일자리·창업 ⑤ 주거 등 5개 분과 중 하나를 선택해 활동하게 된다.

서울청정넷 활동을 널리 알리고 확산하기 위해 각 분과별로 5명 내외의 서포터즈도 운영한다.

정책 제안이 주 임무였던 서울청정넷 활동 범위도 ▲정책 모니터링 ▲현장방문 ▲사회 기여(봉사) 활동 ▲캠페인까지 확대한다. 청년들의 새로운 정책

제안만큼이나 기존 정책의 성숙과 고도화 또한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참여자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행사(네트워킹 데이)도 개최할 예정이다.

참여자들은 '정책 제안'과 '정책 키움(모니터링)' 2개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 활동하게 된다. 현장 방문, 사회 기여(봉사 활동), 캠페인은 활동 분야에 관계없이 공통으로 진행된다.

활동 범위가 정책 제안에서 모니터링, 현장 방문 등으로 늘어난 만큼 청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신규 청년정책 제안과 청년 자율예산 편성을 위해 진행되어 온 정책제안 교육은 기존대로 유지하고 청년들이 정책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글로벌 혁신가 강연과 교육을 추가한다.

청년자율예산은 서울청정넷 제안정책을 다음해 서울시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서울시 소관부서와 조정회의,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청년자율예산 편성(안)이 마련되며, 서울시의회의 심

의·의결을 거쳐 다음 해 서울시 예산으로 최종 편성된다.

마지막으로, 우수 참여자가 청년 해외봉사단, 해외 일경험 등 다른 서울시 청년정책에 참여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한 서울시장 표창 수여, 봉사시간 인정, 서울시 주관행사 등에 우선 방문 기회도 준다.

'서울청정넷' 참여를 원하는 서울청년은 2월 19일(월)~3월 4일(월)에 청년몽땅 정보통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울에 거주하거나 직장이나 학교 등으로 인해 서울을 생활권으로 하는 만 19~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서울청정넷은 청년의 시각에서 다양한 청년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주도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다"며, "이제는 전국으로 확대된 청년참여기구의 시초인 만큼 2024년에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활동으로 대한민국 청년 참여 모델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2024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모집

모집대상
서울시에 거주 및 생활권으로 하는 만 19~39세 청년

모집기간
2024.2.19.(월) ~ 3.4.(월)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 신청하기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멤버등록 (<https://youth.seoul.go.kr/>)

활동분야
기후/환경, 문화/예술, 사회안전망, 일자리/창업, 주거

주요활동
분과 토론 과정을 통한 정책제안 정책키움(모니터링) 활동 제도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캠페인 기획 및 사회기여활동

활동혜택
자원봉사 시간 인정
위원 위촉장 및 활동증명서 발급
활동 우수참여자에게 대상 시상표창 수여
타 시장사업 지원 시(해외 봉사단) 가점 부여

문의
02-2133-4318
ssssong0808@seoul.go.kr

청정넷 바로가기 QR코드

용인특례시, 올해 일자리 2만4504개 창출 목표로 추진계획 수립

용인특례시는 지역 일자리 2만 4504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2024년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올해 ▲일자리 지원 인프라 강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 ▲지속가능한 일자리 환경 구축 ▲주력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특화 일자리 기반 등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총합계획에 담긴 4대 전략을 바탕으로 10대 중점과제와 210개의 세부 사업을 마련했다.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는 가장 많은 인원인 1만 3047명을 고용하고 일자리센터, 용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고용 플랫폼을 활용해 4440명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 구직 연계 등을 지원한다.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 등을 통해 민간 부문 일자리 2667개의 창출하고, 생활 SOC·도로·상하수도 등 산업 인프라 구축 부문에서는 3640개의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창업지원을 통해서도 419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 후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이나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장려금을 활용해 76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특정 직무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과정을 통해서도 215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

이다. 시는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일자리센터, 용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역 내 대학 일자리센터 운영 등을 지원하고 민간기업, 협업 기관과 협력해 일자리박람회 등의 채용행사를 개최할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직업훈련 교육시설, 복지시설 등을 매달 1곳 이상 방문해 직접 취업 정보를 안내하고, 대상자에게 1:1 맞춤 상담으로 취업 알선을 돕는 '일자리 이음' 서비스를 지원한다. 여성 구직자를 위해 평생학습관, 용인시가족센터, 공동주택, 운전면허시험장 등에 찾아가 1:1 취업 상담을 해주는 '찾아가는 새일센터'도 운영을 시작한다.

시는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빅데이터 활용, AI 코딩, 반도체 인재 양성 등 실무 중심의 직무교육 과정을 운영해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 전·현직자에게 직무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한다.

시는 또 청년, 중·장년, 여성, 취약계층 등으로 구직 계층을 세분화에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운영키로 했다.

올해부터는 청년 구직자가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1:1 적성

검사 진로상담 등 개인 맞춤형 취업 컨설팅을 제공하는 '워크브릿지'를 운영하고, 청년 공공인턴, 돌봄 아동·대학생 매칭 학습지원,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한다.

중·장년층 구직자를 위한 관련 분야 경력이나 자격증을 보유한 퇴직 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여성 구직자를 위해선 경력 보유 여성을 위한 공공일자리, 새일여성인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 지원 등으로 구직을 돕고,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노인 일자리, 희망드림 일자리, 자활근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으로 고용을 촉진한다.

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개선, 하수처리시설 운영,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등을 통해서도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을 돕는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신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공공·민간 분야에서 용인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 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국토부 투자심사 통과

국토부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통과... 2033년 개통 목표 추진

인천광역시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이 2월 15일 국토교통부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은 2022년 1월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돼 지난해 3월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을 착수했으며, 이번에 국토부 투자심사 심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은 2020년 12월 개통한 인천1호선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송도8공구 미송중학교까지 연장 1.74km, 정거장 2개소, 총사업비 4,020억 원을 들여 건설하는 사업이다.

시는 203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사업비의 6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송도8공구는 현재 7개 단지 16,272세대(46,184명) 대규모 주거단지가 입주해 있고 향후 2,901세대(7,400명)가 입주 예정이지만, 인천1호선 송



도달빛축제공원역 연계버스 배차간격이 길어 주민들의 철도 이용 불편이 계속돼 왔다.

시는 이번 사업노선이 건설되면 송도8공구에서 송도달빛축제공원역 간 대중교통 이동시간이 전체평균 37.6분에 23.7분으로 13.9분 단축돼 지역주민에 교통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의 국제항 경쟁력 강화 및 대규모 복합관광단

지조성을 추진 중인 골든하버 민간투자사업 투자유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함동근 시 철도과장은 "송도8공구(송도5동)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향상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에서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적극 설명해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전국 최고급 멜론

세지 멜론

NAJU 나주시 NAJU CITY

경북교육청, 문경지역과 함께하는 협약형 특성화고 추진!

문경공업고 소방 분야 인재 양성과 채용을 위한 산·학·관 업무 협약 체결



경북교육청은 16일 문경교육지원청에서 문경공업고등학교의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을 위한 문경지역 산·학·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인재, 지역이 함께 디자인하는 학교”라는 비전으로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청-지자체-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의미한다.

교육부는 협약형 특성화고를 2024년에 10교 내외로 선정하고, 추후 2027년까지 35교를 지정할 계획이다.

학교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서면 평가와 현장평가(발표평가)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선정 시 교육부 특별교부금 35~45억 지원, 규제 완화 법적 근거

를 마련하여 교육과정 등의 자율성 부여, 교육부 중등 직업교육 국가정책사업 가산점 부여 등의 재정지원과 자율성이 부여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임종식 경북교육감, 유권중 문경공업고등학교장,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박영서 경북도의회 부의장과 김창기·김경숙 도의원, 박근우 경북도 소방본부장, 신한국 문경시장, 황재용 문경시의회 의장, 김상동 경북도립대 총장, 김창언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수련원장, 이동시 안동상공회의소 소장, 배명직 (사)대한민국수련기술인총연합회 회장 등 17개 기관대표와 관계자가 참석하여 문경공업고등학교의 소방 분야 인재 양성과 채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협약을 진행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문경시에 전국 최대 정비 및 소방차 전문 운전 교육 훈련 기반 시설인 ‘경상북도 소방장비기술원’을 2027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이며, 소방 분야 인재 양성과 채용을 위해 문경공업고등학교에 재정적 지원, 실습 교육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협약한다.

이외에도 문경시의 지역 정주를 위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한국선비문화수련원의 인성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산업체의 지속적인 인재 채용 등 다양한 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진행한다.

문경공업고등학교는 소방 분야로 학과를 재구조화하고, 과정 평가형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전기) 자격증 취득 과정을 개설하여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을 통해 소방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인성이 함양된 인재를 양성하는 곳으로 재도약하고자 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직업계고는 직업교육의 정체성인 선취업-후학습과 더불어 지역 내 정주를 목표로 해야 한다”라며, “지역 내 학교와 지자체, 기업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산업체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채용으로 연계되어 지속 가능한 경북 직업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울진교육지원청, 2024 농산어촌 지역 순회 방과후학교 전문강사 오리엔테이션 및 청렴서약식 실시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은 2024. 2. 14. 15:00 울진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농산어촌 지역 순회 방과후학교 전문강사 오리엔테이션 및 청렴서약식을 실시했다.

2024년 농산어촌 지역 순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강사들에 대한 연수로 학생 안전관리, 아동학대·성범죄 예방 교육, 방과후학교 강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전달 연수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한, 순회 방과후학교 전문강사들의 청렴하고 공정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청렴 서약식도 실시했는데, 방과후학교 전문강사들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청탁, 금품·향음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다짐했다.

울진교육지원청 황석수 교육장은 “순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항상 애써주시는 강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하여,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장문화/기자



의성교육지원청, 2024년 기록물관리 담당자 교육 실시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은 16일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학교 및 소속기관 기록물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4년 기록물관리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기록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기록물관리 담당자의 실무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교육 내용은 기록물 생산, 등록, 분류, 정리, 이관, 평가, 활용으로 이어지는 기록물관리 업무절차를 상세히 설명했고, 학교 및 처리과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의 유형별 관리법과 문서도 관리법

도 안내했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학교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어려움과 궁금증을 해소했으며, 원문정보 공개를 향상 방안과 비전자 기록물의 편철 및 관리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김기형 행정지원과장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인 기록물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성교육지원청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했다.

윤근수/기자

경북교육청,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한 목적사업비 지침 개정

경북교육청은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목적사업비 관리·운용 지침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적사업비 편성과 집행에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목적사업비를 운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주요 사항은 △집행률 점검을 위한 학교 자체 중간 점검 시행 △학교 집행 실적 제출을 통한 정산 보고 강

화 △사업 집행 결과에 대한 종합분석 △유사·중복되는 사업 조정 등이다.

특히, 과도한 목적사업비는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학교의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저해하므로, 유사·중복되는 목적사업을 조정하고 소규모 사업을 통합하여 적정규모의 목적사업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목적사업을 부서·국별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집행 항목과 기준이 학교에 상세하게 안내되어 학교에서 예

산의 목적 외 사용이 발생하지 않게 되며, 중간 점검과 정산, 종합분석 결과 보고시스템 강화를 통해 목적사업비 불용액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준찬 예산정보과장은 “이번 목적사업비 관리·운용 지침의 개정을 통해 목적사업비 편성과 집행에 관한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목적사업비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교육청, 문해 교육 학력 인정서·우수상 수여식 개최

최고령 88세 이수자 포함 166명 학력 인정 받아



부산광역시교육청은 16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초등·중학 문해 교육 이수자 대표 30명을 대상으로 ‘제10회 문해 교육 프로그램 학력 인정서 및 우수상 수여식’을 열었다.

이날 하윤수 교육감은 기관별 대표

이수자 15명에게 학력 인정서를, 학업 성적 우수자 15명에게 우수상을 각각 수여했다.

학력 인정 문해 교육은 학령기 배움의 기회를 놓친 읽고 쓰기가 힘든 만 18세 이상 성인인 비문해 학습자와 저학력 성인의 문자 해득 능력을 키워줘 초등·중학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램이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2014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총 1,499명의 초등·중학 학력 인정자를 배출했다. 2023학년도에는 10개 기관에서 초등 113명, 중학 53명 등 166명이 학력을 취득했다.

이번 학년도 학력 취득자 중 최연소자는 초등과정을 이수한 51세 이○○ 씨며, 최고령자는 초등과정을 이수한

88세 김○○ 씨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아름다운 도전과 열정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으로 전해진다”며 “우리 교육청은 만학의 어르신들이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문해·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배워서 실천하는 아이신나! 경상교육

성장하는 나! 조화로운 우리! 함께 여는 미래!
교육공동체와 함께 아이들의 행복한 경험과 바른 성장에 힘쓰겠습니다.



교육장 이양준

서울시, 공동주택 전기안전 지원으로 정전사고 예방·에너지 효율 개선

전기설비 안전진단 지원 대상 확대(준공 20년→15년)· 2023년 참여 단지 대상 설문 결과 만족도 100% 기록

서울시는 정전으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와 정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진단과 전기설비 개선 지원사업을 펼친다.

이상기후 현상과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의 보급 확대로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공동주택 전기설비의 용량 부족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정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동주택 정전사고의 경우 다수의 주민 불편을 야기해 정기적인 점검과 노후 시설의 적기 교체가 중요하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서울시 내 공동주택 자체 설비로 인한 정전사고가 연간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1월에는 서초구 공동주택(1,500여 세대)과 상계동 공동주택(900여 세대)에서 자체 설비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정전이 발생해 시민들이 추위 속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등 불편을 겪었다.

노후 공동주택(1990년대 시공)의 전력 사용 설계용량은 세대당 1kW 수준인 반면 현재 전력 사용량은 세대당 평균 3~5kW 수준으로, 정전사고의 위험이 커져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진단 지원, 고효율 변압기 교체 지원, 저전압계전기(UVR) 이전 설치 지원 등을 추진해 전기안전 관리에 힘을 보탠다.

'전기설비 안전진단 지원사업'은 준공 2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이었던 기존 지원 대상을 준공 15년 이상(2010년 이전 준공)으로 확대해 50개 단지에 전기설비 안전진단비 90%(서울시 80%, 전기안전공사 10%)를 지

원한다.

서울시는 2023년 60개 단지에 안전진단을 완료한 바 있다. 해당 공동주택 관리자는 설문조사를 통해(3개 단지 미응답) 적은 부담으로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다며 100%의 만족도를 보였다.

안전진단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전력품질 분석기와 열화상 진단기 등 첨단 측정기기를 활용해 전기설비의 노후화·용량 부족·운전 및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 공동주택이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이끈다.

'고효율 변압기 교체 지원사업'은 한국전력공사의 에너지효율화사업과 연계해 변압기 용량별로 정액 지원한다. 서울시와 한전은 2023년 12개 단지의 노후 변압기 18대를 고효율 변압기로 교체하며, 설비 노후화로 인한 정전 사고도 불만 해소와 에너지 효율 개선을 이뤘다.

'저전압계전기(UVR) 이전 설치 지원사업'은 정전(순간 또는 일시) 발생 후 복구됐을 때 세대 내 즉시 전기 투입이 가능하도록 UVR 동작 위치 이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한전(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 지원)과 20개 단지에 시범사업을 시행해 정전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전의 일시적인 정전 후 전원 정상 공급 시 수동으로 전원 투입하면 전기 안전관리자 부재 등의 상황에 따라 정전 전이 이어질 수도 있다. 실제로 '23

년 5월 송파구 위례동 일대 10개 단지 8,000여 세대 정전됐을 때 수동 투입 시간에 따라 세대별 정전시간이 1시간 가량 차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신청은 서울시 에너지정보 누리집을 통해 '전기설비 안전진단 지원'은 3월 22일까지, '고효율 변압기 교체 지원'과 '저전압계전기(UVR) 이전 설치 지원'은 3월 29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설비의 노후도, 공사가격 등을 평가해 선정할 계획이다.

최광수/기자

오산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나선다

오산시와 오산경찰서가 협업하는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이 지난 5일 문을 열고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오산시 청학동 소재 AI 코딩 에듀랩 1층에 있는 오산시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은 가정폭력·성폭력 사건 발생 시 지자체와 경찰의 개별대응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축됐다.

피해자에 대해 초기상담부터 복지 연계, 재발방지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상담사 겸 통합사례관리사 2명, 학대예방경찰관 1명이 배치됐다.

공동대응팀은 112에 신고된 피해자 및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상담이 필요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초기상담 ▲복지지원 지원 및 정보제공 ▲맞춤형 지원기관 연계 ▲수시 지원 및 상담

▲법률 상담 및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진재 오산시장은 "관내 가정폭력·성폭력 상담 및 지원 기관이 부족해서 피해자들의 어려움이 많았는데 시와 경찰 등 다양한 기관의 공동대응을 통해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고, 피해자 맞춤형 지원과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은 작년 10월 경기도 시군 공모에 선정, 지난해 12월 오산시와 오산경찰서간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사무공간 및 상담실 리모델링, 상담사 채용, 오산경찰서의 학대예방경찰관 지원, 타 지자체 벤치마킹 등의 준비기간을 거쳤다.

양시현/기자



남원시 생활 속 안전지표, '국가지점번호판' 활용으로 신속대응!



남원시는 시민의 생활 안전 도모와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정확한 위치 확인을 위해 설치된 국가지점번호판 90

개에 대한 훼손, 망실, 표기오류 등의 일제조사를 완료했다. 국가지점번호판 건물이 없어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지 않은 산악·해안 및 기타 안전사고 취약지역에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번호로, 각종 재난·사고 시 위치파악과 구조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자연재해 및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훼손될 수 있기에 매년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국가지점번호판 일제조사 결과 망실·훼손된 번호판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진행하고, 설치위치 적합성, 표기 오류의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상태도 추가 점검할 예정이다.

남원시 권혜정 민원과장은 "다가오는 봄철 등산이나 야외활동 증가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가지점번호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광주시, 소규모 건축공사장까지 안전점검 확대

연면적 1000㎡→660㎡로...점검 횟수도 분기서 월1회로 늘려

광주시가 소규모 건축공사장까지 안전 점검을 확대하고, 건축안전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관리를 꼼꼼히 살핀다.

광주광역시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건축안전센터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대상·횟수 확대 및 해체공사장 점검 강화 ▲민간 건축공사장 품질관리 점검 ▲40년 이상 소규모 노후건축물 및 무허가주택 안전 점검 등에 나선다.

지난 2021년 7월 설립된 건축안전센터는 공무원과 건축사, 구조전문가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건축공사장·노후건축물 안전 점검, 안전 관련 기술·정보 제공 등 전문화된 민원 지원 업무를 수행했다.

광주시는 건축안전센터 기능을 확대해 소규모 건축공사장의 안전과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재난 취약 건축물의 안전사고 등을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우선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대상 및 횟수를 늘린다.

안전점검 대상은 연면적 1000㎡의 현장에서 연면적 660㎡로 확대해 소규모 건축공사장까지 안전관리 상황을 살핀다.

착공 초기 시공자·감리자 등 건축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 자문을 하는 한편 점검 횟수도 분기별 1회에서 월 1회로 총총히 관리할 계획이다.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해체계획서 절차 준수, 안전시설 설치 등 적정성을 확인하고 위반사항 발견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또 자치구, 품질전문가와 협업해 민간 건축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에도 나선다.

대상은 오피스텔·다가구주택 등 건축허가 공사장으로, 연 2회 이상 전수 점검을 할 예정이다. 불량자재 사용 등 민원이 발생하는 현장은 수시로 특별점검한다.

특히 노후건축물과 무허가주택에 대

한 안전점검도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다. 40년 이상, 연면적 200㎡ 미만의 소규모 노후건축물 1715동에 대해 안전점검하고, 무허가주택 1113동에 대해서도 안전상태를 확인한다.

건축사와 안전점검기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보강방법 등을 건축주에게 지도할 계획이다.

무허가주택의 경우 장마철(7월부터 8월) 이전에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박규화 건축경관과장은 "각종 건축공사장과 노후 건축물의 안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어디서나 안전한 안심도시 광주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수/기자



세종시, 도로명판·건물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2월부터 6월까지 시설물 노후화·자연재해 등 피해 예방 위해

세종특별자치시가 시설물 노후화, 폭우·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물 낙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월부터 6월까지 주소정보시설 4만 996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 시설물은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 주소정보안내판 등으로 시설물의 망실·훼손 및 설치위치, 시인성 확보, 표기 내용 등의 적정 여부를 점검한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주소정보시설 확충이 필요한 곳엔 신규 설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망실이나 훼손된 시설물에는 재설치를 하는 등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유지보수를 진행한다.

지난해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번호판 1,999개소는 교체 완



료했고 올해도 무상으로 일괄 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일제조사를 계기로 도시미관 개선, 주소 사용자 위치 찾기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길 토지정보과장은 "시설물을 적기에 유지보수해 주소정보시설의 기능을 높이고 내구성을 강화하는 등 안정적인 주소 활용 체계를 갖추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주최| 울진군 |주관| 울진군축제발전위원회
|후원| 한수원주 한울원자력본부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표



도약하는 지역경제



감성충만 관광문화



시민행복 맞춤형복지



인재양성 미래교육



소통중심 공감행정